

발 간 등 록 번 호

11-B553448-000080-01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영 제주도 주정공장에서서의 제주도민 강제동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발 간 사

한반도 내에서의 강제동원도 명백히 강제동원이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는 일이고, 또 하나는 그 아픔의 원인을 규명해 이를 후세에 전하는 일입니다. 전자의 대표적인 사업이 전국합동위령제, 국내외 추도순례, 추모조형물 건립, 위패관 운영 등이라면, 후자의 대표적인 사업이 국내외 학술대회 및 학술교류, 진상조사, 구술채록사업 등일 것입니다.

재단은 후자의 사업을 위해 올해도 5건의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영 제주도 주정공장(酒精)에서의 제주도민의 강제동원
-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 생활사 연구
- ▶ 전후 일본의 우키시마호 사건 진상조사 과정의 문제점
- ▶ 일본 긴키(近畿)지방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조사
- ▶ 한일관계 역사 갈등과 현안문제의 현실과 전망 연구

이 보고서는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영 제주도 주정(酒精)공장에서의 제주도민의 강제동원> 연구 결과입니다.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주정공장을 직영했다면 조금 의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주정(酒精)’은 술의 재료가 아니고, 일제가 전쟁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산업용 알코올을 뜻합니다. 제주도는 주정에 필요한 고구마의 최대 산지였습니다. 그래서 동양척식주식회사라는 일제의 거대기업이 제주도 내에서 가장 큰 기업이자 군수시설인 주정공장을 직영했던 것입니다.

제주도 주정공장은 1939년에 착공했으나 1943년 2월에야 가동을 시작합니다. 아시아태평양전쟁기에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 등을 구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공장 가동을 시작한지 불과 1년 반 정도가 지난 1945년 6월 미군기의 폭격으로 공장의 절반 이상이 불에 타버립니다.

제주 주민들은 공장 건설과 복구 작업에 모두 동원됐습니다. 건설을 할 때는 정지작업에 필요한 돌과 흙을 운반했고, 목수로도 참여했습니다. 고구마를 보관하는 창고의 정리 작업도 제주도민의 몫이었습니다. 복구 작업에는 더 많은 제주도민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제주도민을 주정공장이 아닌 비행장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키며 주정공장에도 동원했기 때문에 하청회사, 주정공장 노무 담당자, 도청 담당 공무원이 짜고 근로보국대를 무상 노동에 이용했을 가능성도 큼니다. 이런 사실은 해외 동원만이 아니라 한반도내 동원도 명백히 강제동원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보고서는 제주대 평화연구소 조성운 박사의 저작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이제 막 궤도에 오른 ‘도내 동원’에 대해서도 좀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2023년 12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최종보고서 초록

관리번호		연구기간	2023년 5월 19일~ 2023년 12월 18일		
연구용역명	(한글)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영 제주도 주정공장에서의 제주도민 강제 동원 (영문) Forced Mobilization of Residents at Jeju Island's Anhydrous Alcohol Factory in Jeju Island directly managed by Oriental Development Company(東洋拓殖株式会社)				
책임연구원 (연구수행처)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참 여 연구원수	총 1 명	연 구 용역비	23,000천원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500자 이내에서 개조식으로 작성)					면수

이 연구에서는 일제의 조선인 강제동원의 실상을 밝히는 작업의 일환으로 동양척식주식회사 제주주정공장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군사시설공사에 동원되었던 근로보국대 인력 활용을 조사하였다.

제주도에서의 주민동원은 관 알선에 의한 일본이나 동남아, 남양군도 지역으로의 노무동원을 제외한다면, 거의 대부분 군사시설 구축을 위한 근로보국대로서의 동원이었다. 제주주정 공장으로 동원된 주민들은 공장부지 정지작업에 투입되고, 창고 정리 작업에도 동원되었다. 1945년 6월 폭격을 맞아 공장이 크게 파괴되고 불탄 상황에 처했을 때는 복구공사에 투입되었다. 그들의 숙식은 회사가 아니라 비행장 건설 현장의 숙소에서 해결했다. 결국 주민들은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군사시설 구축이 아닌 회사 작업 현장에 투입 되었는데, 이것은 하청회사, 그리고 주정공장 노무 담당자가 도청의 담당 공무원이 손을 잡고 근로보국대의 무상노동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색인어	한글	제주도, 강제 동원, 동양척식 주식회사, 무수알콜 제조공장, 근로 보국대,
	영문	Jeju Island, forced mobilization, Oriental Development Company, anhydrous alcohol production plant, Labor Patriotism Unit

요 약 문

이 연구는 아시아·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 일제의 조선인 강제동원의 실상을 밝히는 작업의 일환으로 동양척식회사 직영 제주 주정공장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제 침략기 제주도내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공장은 동양척식(東洋拓植)주식회사가 설립한 주정공장이었다. 이 공장은 산업용 알콜을 생산하는 군수산업 시설이었다. 이 공장은 1939년에 착공식을 갖고 건설을 진행했으나 1943년 2월에 가셔야 공장 설비를 갖추고 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불과 1년 반 후인 1945년 6월에는 미군기의 폭격을 받아 공장 절반 이상이 불에 탔다. 이 때문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 복구공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주정공장과 관련된 각종 노동과 폭격 이후의 복구공사에 제주도 주민들을 강제동원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당시 제주주정공장으로 동원된 주민들은 공장부지 정지작업 단계에 동원되어 돌과 흙을 도로꼬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거나 목수로서 작업에 투입되었다. 그리고 원료가 반입되는 창고의 정리 작업에도 동원되었고, 1945년 6월 폭격을 맞아 공장이 크게 파괴되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복구공사에 투입되었다. 그들의 숙식은 회사가 아니라 비행장 건설 현장의 숙소에서 해결했다. 결국 주민들은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군사시설 구축이 아닌 회사 작업 현장에 투입 되었는데, 이것은 하청회사, 그리고 주정공장 노무 담당자가 도청의 담당 공무원이 손을 잡고 근로보국대의 무상노동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case of Jeju anhydrous alcohol production plant directly managed by Dongyang Chucksik Corporation (hereinafter called as Dongcheok) as part of the work of revealing the reality of Japanese forced mobilization of Koreans during the Asia-Pacific War at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he largest factory in Jeju Island was the anhydrous alcohol production plant established by Dongcheok. This factory was a munitions industry facility that produced industrial alcohol. The plant was constructed in 1939 after a groundbreaking ceremony, but it was not until February 1943 that it was equipped with factory facilities and started operation. However, only a year and a half later, in June 1945, more than half of the factories were burned down by U.S. aircraft Bombing. Because of this, restoration work was carried out until the end of the war.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Jeju Island residents were forcibly mobilized for various labor and restoration work of the anhydrous alcohol production plant after the bombing.

At that time, the residents who were mobilized to the Jeju anhydrous alcohol production plant were mobilized in the stage of cleaning up the factory site, transporting stones and soil, or working as carpenters. In addition, it was mobilized to clean up the warehouse where raw materials were brought in, and when the factory was severely destroyed by the bombing in June 1945, much more people were put into restoration work. Their accommodation was settled not by the company but by the accommodation at the construction site of the airfield. In the end, residents were put into the company's work site rather than building military facilities without receiving any compensation. We can estimate that the subcontractor and the labor manager of the Dongcheok plant used the free labor of the Labor Patriotism Unit in cooperation with the provincial government officials.

차 례

I. 머리말

1. 조사연구의 내용	1
2. 기존 연구의 검토	3
3. 자료 소개	5

II.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제주도 주정공장 설립과 운영

1.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제주도 주정공장 설립	12
2. 제주도 주정공장의 조직과 운영	17
3. 미군기의 주정공장 폭격 및 복구 과정	20

III. 제주도 주정공장에서의 강제동원

1. 일제 말기 제주도에서의 강제동원 양상	24
2. 주정공장에서의 제주도민 강제동원의 실태와 특징	30

VI. 맺는말

〈참고문헌〉	37
--------------	----

■ 표 차례

〈표 1〉 제주도 노무동원 피해 생존자 중에서 동척회사에 동원된 경우	6
〈표 2〉 국가기록원 소장 면담 기록	8
〈표 3〉 단행본에 수록된 면담	9
〈표 4〉 면담을 했으나 단행본에 수록하지 못한 면담자와 내용	9
〈표 5〉 제주주정공장 건설사무소 직원 명단	17

■ 그림 차례

〈그림 1〉 제주항과 주정 공장부지, 그리고 언덕 위의 고구마창고	18
〈그림 2〉 공장부지 배치도	19

I 머리말

1. 조사연구의 내용

이 연구는 일제 말기 아시아·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 일제의 조선인 강제동원의 실상을 밝히는 작업의 일환으로 동양척식회사 직영 제주 주정공장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군은 1930년부터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여 먼저 중국 동북지역, 즉 만주 일대를 점령하고, 만주국을 세웠다. 그리고 1937년부터 일본군은 중국 전체를 지배하고자 전선을 확대했다. 계속해서 일본군은 1941년 말부터 미국을 상대로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조선 식민지 주민의 전쟁 동원은 194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4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동원 양상을 보면 가장 두드러졌던 것이 일본 각지의 탄광과 댐을 비롯한 각종 건설 현장으로의 동원이었다. 나중에는 병사로, 위안부로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섬으로 동원되었다. 물론 조선 내에서 동원도 많았지만,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지역으로의 동원이 대부분이었는데,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조선 내에서의 동원, 그중에서도 제주도에서의 주민동원은 194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제주도에서는 이미 1930년대 말부터 일본 해군이 알뜨르 비행장 확장 공사를, 그리고 19940년대가 되면 육군이 제주 서쪽 정뜨르에 새로운 비행장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이때 제주도내에서는 각 면별로 할당량을 정해서 인원을 동원하고, 동원된 노동력은 적게는 한 달, 많으면 6개월을 일하고 교대하게 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전쟁의 막바지에는 본토결전(本土決戰) 대비의 일환으로 58군 사령부가 설치되고, 약 7만 8천 명의 일본군 병력이 주둔하기 시작했다. 일본군은 미군 상륙에 대비해서 제주도 전역에 인공 갯도를 파고, 참호를 구축했다. 이 시기에는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라남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노동자를 데려와 함께 일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전쟁준비를 위한 주민동원은 제주도 전역에서 진행되었으며, 동원의 규모와 강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심해지기만 했다.

일제 침략기 제주도내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공장은 동양척식(東洋拓植)주식회사가 설립한 주정공장이었다. 이 공장은 연료로 사용하는 산업용 알콜을 생산하는 군수산업 시설이었다. 이 공장은 1939년에 착공식을 갖고 건설을 진행했으나 1943년 2월에 가서야 공장

설비를 갖추고 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불과 1년 반 후인 1945년 6월에는 미군기의 폭격을 받아 공장 절반 이상이 불에 탔다. 이 때문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 복구공사가 진행되었다. 이 주정공장에 관해서는 그동안 연구가 없었고, 최근에 연구가 시작되었다.¹⁾ 그런데 연구 과정에서 주정공장과 관련된 각종 노동과 폭격 이후의 복구공사에 제주도 주민들을 강제동원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제국의 전시 강제동원에는 일본 및 식민지의 탄광 및 각종 군수품 생산 공장에 동원, 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를 위해서 일본의 군수품 생산과 관련된 기업이 조선총독부에 알선 요청을 하고, 총독부는 일정한 노동력을 할당하여 도 단위, 또는 군 단위로 인력을 선발하도록 지시하고, 도와 군은 인력을 선발해서 기업담당자에게 넘겨주는 방식이 일반적인 것이었다. 그럴 경우 대부분은 부산이나 여수 등의 항구까지 군수나 군의 담당자가 인솔해오면, 이를 회사 노무담당자가 인수받아 배에 태워서 일본으로 가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급료가 책정되었다.

조선 내에 있는 회사들은 일찍부터 자신들이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고용하고 있는 인력을 자신들의 작업장에 동원하는 데 이용하였다. 그럴 경우 그들은 각 시도의 행정 담당자들의 동원 대상자 명단에서 빠지고, 기업 소속이 되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일본이 아닌 조선과 만주 등 식민지 각 지역에 많은 작업장과 공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 회사의 작업장이나 공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동원했는지는 거의 밝혀지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의 작업장과 공장이 북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먼저 일제 말기 제주도에 설립된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설립 과정과 회사가 자신들이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충원했으며, 또 일제 말기 지방 행정기구의 인력 동원과정에 개입하여 인력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파악해 보려고 한다.

1) 조성윤, 2022, 「동양척식회사 직영 제주도 주정공장의 설립과 운영」, 제주학 연구 센터 ; 조성윤, 2023, 「일제의 전시 에너지 정책과 조선총독부의 제주도개발계획과의 만남-동양척식주식회사 직영 제주도 주정공장의 설립과정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7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 기존 연구의 검토

먼저 지금까지의 연구 동향을 간략히 정리한다. 일제 말기 조선인 강제 동원에 관한 연구는 일본 각지로의 노무 동원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군인, 군속, 위안부 동원에 관한 연구가 뒤를 이었다. 반면에 조선 내에서, 특히 국내 각 지역에서의 현지 동원(도내 동원)은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은 편이었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국내 동원에 관해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기 시작한 것은 허수열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²⁾

국내 동원 조사 연구 활동은 2000년대 초에 활성화되었다. 일제 강점 하 강제 동원 진상규명 위원회가 조직되어 활동을 시작한 것이 2005년이였다. 이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신고를 받는 한편, 그동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내 여러 지역의 강제 동원 실태를 직접 조사하면서 보고서를 생산하였다. 특히 제주도 조사가 두드러진다.³⁾ 이 자료를 활용해서 구술집도 간행되었고, 관련 연구 논문도 나왔다.⁴⁾

또 하나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의 제주도 전쟁유적 조사팀에 의해서 진행된 조사 작업이다. 이 작업은 제주도 전역에 남아 있던 전적지를 현장 답사하는 일과 일제 말기 강제 동원되었던 피해자들을 방문하여 그들의 구술 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작업이 중심이었다. 이 조사 활동은 2005년 9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는 현장조사 자료집⁵⁾과 구술 자료집(조성윤 외, 2007), 그리고 논문집까지 모두 3권의 책으로 엮였다. 강제 동원 관련자 구술은 모두 20명을 뽑아 책으로 간행하였다⁶⁾ 그리고 논문집에는 허수열과 지영임의 제주도 주민의 강제 동원 실태에 관한 논문이 실렸다.⁷⁾

그 뒤로 제주도 주민들의 강제 동원에 관한 연구는 한동안 나오지 않다가 최근에 일제강점 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자료를 활용한 정혜경의 연구와 고광명 연구팀의 일련의

2) 허수열, 1985, 「조선인 노동력의 강제동원의 실태—朝鮮內에서의 강제동원정책의 전개를 중심으로」, 차기벽 엮음, 『일제의 한국 식민통치』, 정음사.

3)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2007, 『제주도 군사시설 구축을 위한 노무 병력동원 진상조사』, 동위원회.

4) 이병래, 2007, 「일제말기 노동력동원의 일상화와 민중의 대응방식」, 『역사연구』 제17호, 역사학연구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8, 『굴 파러 군대 갔어!』, 동위원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8, 『일하지 않는 자는 황국신민(皇國臣民)이 아니다-제주도 군사시설 구축에 동원된 민중의 기억』.

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한라일보사, 2008, 『일제하 제주도 주둔 일본군 군사유적지 현장조사 보고서 I』, 보고서.

6) 조성윤·지영임·허호준, 2007, 『빼앗긴 시대 빼앗긴 시절: 제주도 민중들의 이야기』, 도서출판 선인.

7) 허수열, 2008, 「제주도에 있어서 조선인 강제동원」, 조성윤 엮음, 『일제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지영임, 2008, 「구술을 통해 본 일제하 제주도 내 강제동원의 실태와 특징」, 조성윤 엮음, 『일제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작업이 나왔다. 정혜경은 전라도 지역의 광부들이 제주도에 동원된 과정과 의미를 살피는 작업을 했다.⁸⁾

고광명 연구팀의 작업은 3차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1차는 재일제주인⁹⁾, 2차는 재일 제주인의 일본으로의 강제 동원과 관련된 기념물을 다루었고¹⁰⁾, 3차는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에 신고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고성만 외, 2020). 하지만 이 연구들은 모두 제주도 내의 동원은 다루지 않았다.

동양척식주식회사에 관해서는 많은 논문과 저서에서 다루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주로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조선의 토지를 수탈하여 일본인들을 이주자들에게 분배하고, 조선 소작인들을 수탈한 실태와 이에 저항했던 조선 소작 농민들의 투쟁이라는 주제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다.¹¹⁾ 반면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다양한 활동, 이를 테면 중국, 태평양,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활동에 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¹²⁾ 그리고 이 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연구가 일부 있지만,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국내 저서는 보이지 않는다.¹³⁾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제주에 건설한 주정공장을 다룬 논문 역시 아직 없었다. 그동안 제주도의 주정공장에 관해서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던 연구자는 고영철이다. 그는 제주항토사 연구자 입장에서 지금은 건물이 모두 사라진 주정공장 터의 역사를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
- 8) 정혜경, 2018, 일제말기 제주도 군사시설공사에 전환 배치된 조선인 광부의 경험 세계 - 한반도 내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인식과 배경을 중심으로 -, 『한일민족문제연구』 35집, 한일민족문제학회.
 - 9) 박찬식, 고광명, 고병수, 2017, 『일제 강제연행 재일제주인 이주경로 추적』, 제주학 연구센터.
 - 10) 박찬식, 고광명, 고병수, 심재욱, 2019, 『일제강점기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현황 및 실태조사(큐슈, 오키나와 편)』, 제주학연구센터.
 - 11) 강태경, 1995, 『(東洋拓殖會社의) 조선경제 수탈사』, 계명대학교출판부; 權寧旭, 1968, 「東洋拓殖株式會社と宮三面事件」, 『朝鮮研究』 8, 朝鮮學會; 김대래, 2004, 「東拓移民의 전개와 한국인의 대응」, 『경제경영연구』 5집, 신라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김석준, 1986,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사업전개 과정」,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제2집』, 문학과지성사; 손경희, 2002, 「1920년대 경북지역 동양척식주식회사 및 일본인 농장경영」, 『계명사학』 13집, 계명사학회; 安秉珪, 1976, 「東洋拓殖株式會社の土地收奪について」, 『社會科學年報』 7, 龍谷大學社會科學研究所; 안병태, 1982, 「조선인 지주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경영방식의 차이」, 『한국 근대경제와 일본 제국주의』, 백산서당; 李圭洙, 2000, 「전남 나주군 '궁삼면'의 토지소유관계의 변동과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집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1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이규수, 2021,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수탈과 궁삼면 토지탈환운동』, 동북아역사재단; 조기준, 1977, 「日人 農業移民과 東洋拓殖株式會社」, 윤병석 외 편, 『한국근대사론 1』, 지식산업사; 최원규, 2000, 「東洋拓殖株式會社の 이민사업과 동척이민 반대운동」, 『韓國民族文化』 제16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12) 조정우 2018, 「지역조사와 식민지의 경계시대 -1919년 전후 동척과 조선은행의 간도조사-」, 『만주연구』 26호, 만주학회.
 - 13) 최근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운영에 관해서는 아직 단행본으로 나올 정도는 아니지만, 연구가 나오고 있다. 배석만과 조명근의 연구가 그렇다. 배석만, 2014, 「전시체제기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자금동원 구조와 투자동향 분석」, 『지역과 역사』 34집, 부경역사연구소; 조명근, 2020, 「戰時期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자금 조달과 운용 실태」, 『亞細亞研究』 63권 1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일본연구자들의 연구는 다음을 볼 것. 河合和男 외, 2000, 『國策會社・東拓の研究』, 東京, 不二出版; 黒瀬郁二, 2003, 『東洋拓殖會社-日本帝國主義とアジア太平洋-』, 日本經濟評論.

글을 신문에 실어놓았다. 조선총독부와 전라남도가 추진하던 제주도 개발계획에 관해서는 진관훈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그는 이 계획이 어떻게 동양척식회사의 주정공장 설립으로 넘어왔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해방 후 주정공장이 어떻게 민간에 불하되고 마지막까지 이어졌는지는 고광명의 논문에 일부 서술되어 있다. 최근 들어 제주 산지향 축항 과정을 연구한 현미애의 논문이 주정공장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주정공장이 제주에 건설되는 정책 결정과정을 정리했다.¹⁴⁾ 조성윤은 이러한 기존 성과를 토대로 하면서 일본 국립 공문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동양척식회사 제주주정공장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해방 후 한국인의 손으로 운영된 제주주정공장의 변화 추이를 정리했다.¹⁵⁾

3. 자료 소개

1) 동양척식주식회사 관련 문서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영 제주주정공장 관련 자료는 일본 동경의 국립공문서관에 대부분 소장되어 있다. 그곳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생산했던 수백 건의 서류철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제주도의 직영 주정공장 관련 서류철만도 40책이 넘는다. 연구자는 2022년 9월과 2023년 9월, 10월 동경에 머물면서 국립공문서관을 방문해서 직접 자료를 열람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이 서류에는 제주도 주정공장의 초기 설계도부터 공장 배치도, 공사 진행과정, 기타 다양한 관련 사항이 담겨 있었다.¹⁶⁾

동양척식회사 본사에 보관하고 있던 제주주정공장 관련 서류철을 조사하고 주정공장에 동원되었던 제주도 피해자들에 관련된 노무 자료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특히 강제 동원과 관련하여 제주도 내 행정기관이나 군부대와의 연락 서신이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서류철에 첨부되어 있는 전보와 편지도 모두 복사하였다.

그러나 돌아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노무 관련 문서는 거의 없었다. 문서의 대부분이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설비 공사를 어떤 업체에게 맡겼는지, 어떤 기계를 구입해서 어떻게 배치하는지 등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문서는 생산량

14) 진관훈, 2004, 「일제하 제주도 개발」, 『근대 제주의 경제 변동』, 도서출판 각 ; 고영철, 2020, 「동척회사 건입동 주정공장(무수주정 제주공장) & 육군 제5훈련소 터」, 『제주환경일보』 2020년 3월 28일 ; 고광명, 2015, 「재일(在日)제주인의 산업경제에 대한 공헌」, 『일본근대학연구』 제50집, 한국일본근대학회 ; 현미애, 2020, 「일제강점기 제주 산지향 축항 연구」, 제주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상세한 내용은 조성윤, 2023, 뒷글, 10쪽을 참고할 것.

15) 조성윤, 2022, 「동양척식회사 직영 제주도 주정공장의 설립과 운영」, 제주학 연구 센터.

16) 상세한 내용은 조성윤, 2023, 뒷글, 12-15쪽을 참고할 것.

의 변동을 육군 연료 본부 등 정부 기관에 보고하는 것들이었다. 그러므로 현재 일본공문서관에 남아 있는 동양척식주식회사 제주 주정공장 관련 서류는 주로 다른 정부 또는 군 기관에 보고하는 것들과 본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굵직한 사업들에 관한 것들이고, 공장의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작은 일들, 특히 노무와 관련한 문서는 동경 본사에 보고되지 않은 채 시행되었고, 전쟁 후 그대로 폐기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게 되었다.

2) 강제동원 피해자 면담 기록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주목한 다른 자료는 일제 말기 제주도 주민들의 강제동원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던 강제동원 피해자 면담 기록이다.

먼저 주목한 것은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가 2008년에 발간한 『제주도 군사시설 구축을 위한 노무 병력동원 진상조사』 보고서에 실린 주민들의 동원 내용이었다. 이병례 연구원이 책임자가 되어 정리한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에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에 접수된 제주도의 강제동원 피해자는 모두 486명으로, 신고 당시 사망자가 312명이었고, 생존자가 174명이었다. 사망자는 동원 당시 사망한 경우와 해방 이후 사망자를 모두 포함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174명이 신고한 동원 장소와 작업 내용을 기록해 놓고, 그중에서 33명을 면담한 내용을 부록으로 실어 놓았다. <표 1>은 그 중에서 동척회사, 즉 동양척식 주식회사 직영 제주 주정공장에 동원된 내용을 담은 것은 강춘길, 김응길, 고만규, 문천송 등 4명의 면담 기록이었다. 이들의 동원 기록과 면담 내용을 보면, 동양척식 주식회사 직영 제주 주정공장에 동원되어 공장 건축 현장에서 운반 노동을 했다든가, 폭격 맞은 건물을 수리하는 작업에 동원되었다고 증언했으며, 고구마 푸대를 운반했다는 증언도 보인다.

<표 1> 제주도 노무동원 피해 생존자 중에서 동척회사에 동원된 경우

이름	당시나이	현 거주지	작업 내용
강○재	17세	남군 남원읍	정뜨르 비행장 1944년7월~8월. 동척 회사 건물 보수
강○길	15세	남군 남원읍	알뜨르 비행장, 진뜨르 비행장, 주정공장 고구마 푸대 운반(1944년)
김○길	17세	남군 남원읍	제주시 알코올 공장 건물 공사(1944년 2월)
고○규	17세	남군 남원읍	동척 회사 폭격 맞은 건물 수리 20일간 (1945년10월~8월)
김○병	17세	남군 남원읍	제주시 부두 동척회사 2회 동원 (1944년10월~11월/ 1945년6월~8월)
문○송	18세	남군 남원읍	동척 회사 건축현장 운반노동(1943년 8월~10월) 축항공사(1945년8월)

출처 :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2007, 『제주도 군사시설 구축을 위한 노무 병력동원 진상조사』, 동원위원회.

하지만 4명의 면담 기록은 요약 정리된 것이어서 아쉬웠다. 이 4명의 동원 상황을 자세히 알고 싶었고, 나아가 면담록이 없는 강○재와 김○병도 만나 다시 면담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행정기관을 통해서 그들의 생존 여부를 알아보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의 주소가 모두 남원읍이라는 것만 나와 있을 뿐 더 자세한 주소가 없어서 확인이 어려웠다. 그래도 확인을 계속하던 중 위미리에 주소를 둔 분들이 가장 많았는데, 그 중 1명은 아직 생존해 있으며, 가족의 전언에 의하면 현재 요양 시설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면담이 어려울 정도의 건강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동원 당시 17세였던 고○규가 1930년생이므로, 당시 면담 조사에 응했던 남원읍 면담자들의 나이가 이미 90세가 넘었다. 그분들이 설령 생존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면담을 통해 자신들이 겪었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해줄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제주도의 사례만이 아니라 전국 모두 공통된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더 이상 국내의 강제동원 피해자를 만나서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국 현 단계에서 가능한 방안은 현재까지 수집되어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가 2008년에 발간한 『제주도 군사시설 구축을 위한 노무 병력동원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수집한 면담 자료를 찾아 보았다. 이병례 책임연구원에 의하면, 당시 수집한 자료는 면담할 때의 녹음테이프와 동영상 자료, 그리고 녹취록인데, 모두 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위원회는 중간에 ‘국무총리 산하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었고, 2015년 말까지 존속하다가 문을 닫았다. 그 뒤 자료 행방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자료 중에 일부는 행정안전부에, 일부는 강제동원 역사관 자료실에, 그리고 일부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강제동원 역사관 자료실에 문의해 본 결과 관련 자료는 소장하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국가기록원 목록을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표 2>의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자세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고, 면담에 응했던 분들의 이름도 성만 밝혀져 있어서 확실하지는 않고, 특히 ‘49건의 제주도 노무동원 구술자료’는 동척회사 현장에 강제 동원되었던 분들의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 자료들이 모두 ‘녹음, 동영상류’이고, ‘비공개’로 분류되어 있었다. 결국 현 단계에서 이용 가능한 것은 2007년에 간행된 보고서의 부록에 실린 녹취록뿐이었다.

〈표 2〉 국가기록원 소장 면담 기록

제 목	생산연도	관리번호
v00954_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구술기록 49건 : 제주도 노무동원 구술자료	2007년	DED0000882
v01302_김OO의 구술자료 : 제주도 강제동원 생존자 구술자료	2006년	DEH0001618
v01303_김OO의 구술자료 : 제주도 강제동원 생존자 구술자료	2006년	DEH0001619
v01305_김OO의 구술자료 : 제주도 강제동원 생존자 구술자료	2006년	DEH0001621
v01306_김OO의 구술자료 : 제주도 강제동원 생존자 구술자료	2006년	DEH0001622
v01307_강OO의 구술자료 : 제주도 강제동원 생존자 구술자료	2006년	DEH0001623
v01309_정OO의 구술자료 : 제주도 강제동원 생존자 구술자료	2006년	DEH0001625
v01310_조OO의 구술자료 : 제주도 강제동원 생존자 구술자료	2006년	DEH0001626
v01311_박OO의 구술자료 : 제주도 강제동원 생존자 구술자료	2006년	DEH0001627

출처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또 하나의 자료는 탐라문화연구소의 〈일제하 제주도의 일본군 전적지 조사 연구〉 프로젝트 팀의 면담 자료였다. 당시 연구팀은 매주 현장을 찾아 전적지를 조사하는 한편, 2005년 가을부터 2006년 봄 사이에 집중적으로 강제 동원 피해 신고자들을 만나 면담을 진행하였다.¹⁷⁾ 이번에 검토하는 자료는 바로 이때 수집한 자료가 중심이다. 면담 팀을 둘로 나누고 각각 전담 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이 함께 작업을 진행했는데, 녹음과 함께 비디오로 수록하는 작업도 함께 했다. 연구소에는 녹음테이프와 비디오가 보관되어 있고, 연구원들은 각자 면담 일지와 녹취록을 보관했다. 2007년과 2008년에 결과를 단행본으로 출간한 다음에는 후속 연구를 하지 못했다. 이어서 2008년과 2009년에 제주도 문화재과로부터 전적지 관련 조사 의뢰를 받아 후속 작업이 있었는데, 이때 추가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9명의 면담 내용은 2005년과 2006년의 면담과 중복이지만, 첫 번째 면담에서 말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함께 검토하였다. 〈표 3〉과 〈표 4〉의 내용이 그것이다.

1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한라일보사, 2008, 『일제하 제주도 주둔 일본군 군사유적지 현장조사 보고서 I』, 보고서 ; 조성윤·지영임·허호준, 2007, 『빼앗긴 시대 빼앗긴 시절: 제주도 민중들의 이야기』, 선인.

〈표 3〉 단행본에 수록된 면담

번호	이름	나이	거주지	동원 내용
01	강성대	1925	애월읍 하가리	군, 산천단, 명도암, 돌오름
02	고남경	1924	서귀포 호근동	군동원, 송악산, 어승생
03	고석돈	1924	애월읍 광령리	군동원, 명도암, 모슬포, 어승생
04	고창욱	1924	서귀포 신호리	군동원, 서귀포 해안특공기지
05	고태수	1925	성산읍 성산리	군동원, 어승생
06	고태완	1924	성산읍 수산1리	군동원, 정뜨르
07	김대중	1925	대정읍 모슬포	군동원 도리대부대
08	김병석	1930	조천읍 함덕리	근로봉사대, 북촌해안, 진드르
09	김성방	1931	한림읍 월림리	알뜨르, 송악산
10	김자봉	1930	구좌읍 한동리	진드르, 별도봉, 정뜨르
11	김효중	1928	구좌읍 평대리	정뜨르, 진드르, 구좌-송당통나무
12	남인희	1924	한림면 판포리	군대, 어승생
13	문갑선	1924	애월읍 고성리	군동원, 아라리, 명도암
14	문상진	1926	대정읍 무릉리	군대, 모슬포, 진드르,
15	강희경	1930	안덕면 창천리	송악산 모슬포 쪽 동쪽에는 시설부
16	이갑부	1925	안덕면 서광리	군대동원, 어승생
17	임두병	1926	애월읍 중엄리	동척 폭격, 군대소집, 정뜨르
18	허두헌	1929	제주시 오라동	원당봉, 정뜨르
19	허찬부	1924	서귀포시 호근리	군대동원, 어승생
20	현남인	1927	표선면 성읍리	알뜨르, 진드르

출처 : 조성윤 외, 2007 『빼앗긴 시대 빼앗긴 시절』, 도서출판 선인.

〈표 4〉 면담을 했으나 단행본에 수록하지 못한 면담자와 내용

번호	이름	나이	거주지	동원 내용
21	고○규	1930	남원읍 위미리	동척동원
22	고○표	1915	구좌읍 상도리	정뜨르
23	고○일	1925	제주시 삼도동	동척 설명, 군동원, 건축 업무
24	고○춘	1930	한림읍 월령리	알뜨르
25	구○현	1924	안덕면 사계리	동척 폭격, 군동원, 어승생
26	김○일	1925	애월읍 수산리	동척 폭격
27	김○봉	1926	조천읍 외흘리	정뜨르
28	김○규	1925	제주시 도두동	정뜨르, 어승생
29	김○현	1933	애월읍유수암리	바리메 소구루마 피복운반
30	김○양	1926	성산읍 수산리	정뜨르,
31	김○현	1930	서귀포 신호동	알뜨르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영 제주도
주정공장에서의 제주도민 강제동원

번호	이름	나이	거주지	동원 내용
32	김○용	1928	서귀포 예래동	알뜨르
33	김○춘	1924	중문면	알뜨르
34	김○삼	1925	성산읍 수산리	군동원,
35	김○정	1922	제주시 삼양동	정뜨르
36	문○학	1922	대정읍 일과리	알뜨르
37	박○호	1925	한림읍 대림리	정뜨르
38	박○실	1929	구좌면 평대리	정뜨르
39	송○수	1927	안덕면 덕수리	알뜨르
40	오○성	1929	서귀포 서흥동	정뜨르
41	오○주	1932	안덕면 창천리	알뜨르, 송악산, 고도모부따이
42	오○승	1925	안덕면 창천리	서림, 알뜨르
43	이○진	1926	한림읍 귀덕리	
44	이○춘	1924	애월읍 곽지리	군동원, 어승생
45	이○수		한림읍	한림항 폭파 목격자
46	임○길	1916	서귀포 예래동	모슬포, 정물오름, 화순항
47	임○수	1927	대정읍 상모리	알뜨르
48	장○영		서귀포	한림, 고와마루,
49	한○생	1927	조천읍 와흘리	원당봉 굴파기, 경찰
50	허○화	1927	중문면 색달동	정뜨르, 어승생
51	허○효	1924	남원읍 하례리	군동원, 명도암, 돌오름
52	김○종	1925	제주시 건입동	정뜨르비행장, 사라봉, 주정공장 근무
53	강○화	1930	애월읍 장전리	애월지역 일본군 근거지
54	김○두	1929	제주시 화북동	정뜨르, 화북동
55	이○옥	1924	안덕면 동광리	군동원, 어승생
56	김○하	1935	성산읍 고성리	일출봉 목격
57	김○흥	1927	서귀포시 신호동	송악산, 삼매봉
58	이○선	1930	서귀포시 도순동	송악산, 알뜨르, 서림
59	장○익	1929	서귀포시 도순동	송악산, 알뜨르, 서림
60	박○규	1927	전남 승주군 서면	일출봉
61	장○종	1922	전남 광양군 옥룡면	일출봉
62	주○만	1930	전남 광양군 광양읍	일출봉
63	현○수	1927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봉
64	김○주	1924	안덕면 사계리	어승생
65	김○환	1929	조천읍 함덕리	서우봉
66	양○팔	1918	대정읍 무릉리	가마오름

소장처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원.

두 그룹의 자료군을 비교해 보면, 이병례 조사팀의 보고서에 등장하는 면담자들과 탐라문화연구소에서 조사했던 면담자는 서귀포 남원읍의 고○규씨만 중복될 뿐 모두 달라서 오히려 다양한 증언을 수집할 수 있었다. 중복 조사된 고만규씨도 이병례 팀의 면담록이 요약인데, 탐라문화연구소에 남아 있는 녹취록은 원본 그대로라서 훨씬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김석중의 사례처럼 일제 말기에 정뜨르 비행장 공사와 사라봉 갯도진지 굴착 작업에 동원되었던 경험을 가진 분이 제주 주정공장에 입사를 해서 직원으로 지낸 사례도 있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일제 말기 미군 폭격기가 제주항과 주정공장을 폭격했던 상황을 목격한 이야기도 남아 있었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좀 더 풍부한 내용을 밝힐 수 있었다.

II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제주도 주정공장 설립과 운영

1.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제주도 주정공장 설립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일본 정부가 「동양척식주식회사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고, 100% 출자해서 세운 국책회사였다. 가장 큰 설립 목적은 식민지 지배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1908년에 처음 설립될 때만 해도 조선 지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식민지 지배 영역이 넓어지자, 본사를 동경으로 옮기고, 조선뿐만 아니라 만주와 남양군도 지역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갔다.¹⁸⁾

1930년대가 되면 일본은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하고 산업의 규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그 바탕이 되는 중심 에너지도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중일전쟁이 시작되면서, 군대가 사용하는 석유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일본 안에서는 아주 적은 양의 석유가 생산될 뿐이었으므로, 거의 모든 석유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¹⁹⁾ 게다가 석유를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었는데, 일본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미국과의 대립이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라, 수입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찾아낸 석유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이 석유 대체물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하나는 석탄에서 인조석유를 뽑아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오늘날 바이오연료라고 부르는, 산업용 알코올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이는 석유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발견이 될 것이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이미 유럽에서 상당한 수준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독일에서는 상당한 수준까지 상용화된 상태였다. 독일의 인조석유 생산량은 1934년 40만 톤에서 3년 후인 1937년에는 연 123만 톤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일본은 독일의 액체연료 자급정책을 참고로 인조석유정책을 수립했다. 만주 철도 주식회사는 석탄 직접 액화법(수소 첨가)을 도입했고, 1927년부터 암모니아 비료를 제조해본 경험이 있는 조선질소비료(후에 조선인조석유(朝鮮人造石油))는 1936년에 함경북도 경흥군 아오지탄전(阿吾地炭田)에 석탄액화공장을 설립했다. 독일에서 직접 기술을 도입하면서도, 해군과 기업들은 독자 기술 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기술 개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결국

18) 黒瀬郁二, 2003, 『東洋拓殖會社-日本帝國主義とアジア太平洋-』, 日本經濟評論社; 조정우, 「지역조사와 식민지의 경계지대 - 1919년 전후 동척과 조선은행의 간도조사-」, 『만주연구』 26호, 만주학회, 2018.

19) 石井正紀, 2008, 『石油技術者たちの太平洋戦争』, 光人社NF文庫, 11-12쪽.

전쟁 중이던 1943년이 되어서야 해군은 석탄 직접 액화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액화법 개발을 중지했다. 만철과 조선인조석유 회사의 인조 석유 생산 계획이 실패한 것이다.²⁰⁾

인조석유와 함께 대안으로 모색된 것이 무수주정(無水酒精, anhydrous alcohol)이었다. 이것은 물을 함유하지 않은 에탄올(에틸알코올)을 말한다. 물이 거의 섞이지 않은 99% 이상의 에탄올은 공업용으로 다양하게 쓰이며, 가솔린 대신 연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석유 대신 알코올만 쓰면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연구 결과 가장 효율이 높은 것이 석유 80%에 알코올 20%를 섞을 때였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일본정부는 1938년부터 석유에 알코올을 섞어 사용하는 강제혼화(強制混和)를 국가 에너지 정책으로 채택했다.²¹⁾

일본 정부가 일본 제국 영역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추이를 따라서 계산했을 때, 약 200만 석의 알코올이 필요했다. 일본 국내에서 이미 생산하고 있는 무수주정과 새로 공장을 확충해서 만드는 무수주정을 합치면 100만석 정도였다. 그리고 사탕수수를 원료로 대만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60만석 정도 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서 적어도 무수주정을 30만석은 생산해야 강제혼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조선총독부에 알코올 공장을 새로 짓고 생산에 착수하도록 명령했다. 그동안 조선총독부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무수주정 생산을 꺼리고 있었는데, 일본정부가 계속해서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²²⁾

무수주정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연료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목재였고, 또 하나는 고구마였다. 당시 목재가 가장 풍부하게 생산되는 지역은 북조선 신의주 지역이었고, 고구마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 제주도였다. 조선총독부는 신의주에 먼저 공장을 짓기로 결정하고, 이 사업을 맡아달라고 동양척식주식회사에게 부탁했다. 동척은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지만, 기꺼이 이 과제를 떠맡아 새로운 회사 창설에 나섰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직영이 아니라 자회사를 설립하여 맡기는 방식을 선택했다.²³⁾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톱밥(거설, 鋸屑)을 원료로 무수알코올을 제조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 방법은 쇼라법이라고 하는데, 독일에서 개발된 기술이었다. 당시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의 북조선 지방에서는 한창 벌채 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제재소에서 대량의 톱밥이 부산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이것을 원료로 하는 공장을 신의주(新義州)에 짓기로 한 것이다.

20) 岩間敏, 2015, 「開戦決定と人造石油—何故、日本に人造石油工業は成立しなかったのか—」, 一橋大學大学院 博士學位論文.

21) 「燃料對策▲問題의 發端과 進展(一) 張元俊」, 『조선일보』 1936년 08월 23일.

22) 『毎日申報』 1937년 3월 2일; 『朝鮮日報』 1937년 3월 3일.

23) 신의주의 「朝鮮無水酒精會社」는 1937년 6월 19일 동경 동척 본사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 회사는 자본금 5백만 원, 목재 톱밥을 원료로 연산 1만4천석(石)을 제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朝鮮日報』 1937년 6월 21일.

총독부는 톱밥이 아닌 다른 원료, 즉 고구마에서 알코올을 추출하는 사업도 추진했다. 마침 전라남도가 1936년부터 제주도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었으므로, 여기에 제주도 개발 사업에 끼워 넣기로 하였다. 확정된 ‘제주도 개발계획안’을 보면, ‘제주도 개발회사’라는 특수회사를 설립하여, 이 회사가 무수주정 제조, 면양목장 경영, 젓소 목장 경영, 수산업 및 부속 사업의 경영, 이민사업, 전기사업 등을 직영하도록 했다. 총독부와 전라남도는 개발 사업과 관련한 기초 시설 및 보조 사업에 투자하고, 방풍 방사림과 도로 개량, 항만수축, 상수도 부설, 지하수 조사 등의 토목사업을 하기로 구상한 것이다.²⁴⁾

그런데 조선의 소주생산업체들은 이와 같은 조선총독부의 무수주정 생산 계획을 보도를 통해 알고 있었다. 곡물을 증류해서 알코올을 생산하는 경험을 갖고 있던 그들에게 무수주정은 사업 확장 기회였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무수주정을 생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조선총독부에 건의했다.²⁵⁾

당시 조선의 소주 사업자들은 조선기계소주연맹(朝鮮機械燒酒聯盟)이라는 조직을 구성하고 있었다. 조선인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은 일본에서 건너온 사업자들이었다. 이 시기 조선 전국 각지에는 수천 개의 양조장이 있었고, 그 대부분은 조선인 사업자들이 경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가 세운 주조업(酒造業) 정리 방침에 따라서, 영세한 소규모 주조업자들은 크게 줄어들고 있었다.²⁶⁾ 대신에 일본에서 건너온 새로운 증류 방식에 의한 소주 제조 기술인 ‘기계소주’ 업자들이 술 시장을 장악해 갔다. 물론 산업 연료로 사용할 알코올은 일반 소주와는 달랐다. 일단 증류를 시켜서 얻은 95도 알코올을 다시 한 번 증류시켜 99%가 넘는 무수 알코올을 생산하려면 새 기계를 설치하고 작업장도 넓혀야 했다. 그렇지만 무수주정생산은 모처럼 찾아온 사업 확장 기회였다.

조선총독부도 소주업자들의 주정생산능력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전국 각 도에 13개의 공장을 신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²⁷⁾ 그래서 무수주정공장이 경남 마산에 세워진다, 인천, 또는 여수에 세워진다 하는 기사가 계속 신문에 실리고 있었다.²⁸⁾

1938년이 되자 조선총독부 액체연료위원회(液體燃料委員會)는 고구마를 원료로 한 무수주정 공장을 가장 먼저 제주도에 세우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유는 원료가 가장 많이 재배되는 지역이 제주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 설립과 운영을 소주업자에게 맡기기로

24) 조성윤, 2023, 윗글, 19-22쪽.

25) 『朝鮮日報』 1936년 7월 28일.

26) 『조선일보』 1927년 9월 23일.

27) 『朝鮮日報』 1937년 4월 14일.

28) 『釜山日報』 1937년 3월 21일 ; 『朝鮮日報』 1937년 4월 14일 ; 『東亞日報』 1937년 12월 9일.

했다. 자금은 총독부가 조선기계소주연맹과 공동출자하여 경영할 방침이라고 했다.²⁹⁾ 기계소주연맹에 소속된 소주업자들은 조선총독부가 주겠다는 보조금을 받으면 사업이 가능한지, 수익은 얼마나 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특히 제주도가 교통이 불편해서 공장 건설도 문제이고,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운반해서 갖고 나오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실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소주연맹의 각 조합 대표들이 직접 제주도를 시찰 했다.³⁰⁾ 그리고 나서 소주연맹은 보조금을 받아도 수익이 별로 날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하고는 제주도가 아닌 목포나 부산으로 옮겨 공장을 설치할 것을 정식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이미 이 사업을 제주도에서 해야 한다고 결정해 놓고 있었다. 제주도 개발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개발계획을 추진할 독립 회사를 설립해서 맡기겠다는 구상도 해놓은 상태였다. 결국 조선총독부는 제주도에 건설할 무수주정회사의 설립주체를 소주연맹 대신, 다른 사업자를 찾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하지만 소주업자 이외에는 이 사업을 맡아서 진행할 사업자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총독부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일본의 사업자들을 만나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지만 선뜻 나서는 기업이 없었다. 그러자 조선총독부는 의정부에 이어 제주도의 주정공장 사업도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부탁하기로 하였다. 동척은 신의주에서 주정공장을 짓는 중이었다. 그래서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다. 이번에는 조선총독부가 더 적극적이었다. 총독부는 적자를 메꿔줄 만큼 국가보조도 나올 것이라고 설득했다. 더 나아가 제주항을 대대적으로 확장해서 교통 불편을 없애주겠으며, 총독부가 직접 항구 바로 근처에 공장 부지를 마련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런 파격적인 조건이 제시된 다음에야 비로소 동척이 이 사업을 맡는 것으로 정해졌다. 동척에서 이 사업을 맡더라도 별 이익이 없다는 것도 분명했다. 그러나 국책회사 동양척식주식회사로서는 이것 역시 수익이 우선이 아니고 국가정책 사업으로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해야 하는 사업이었다.³¹⁾

동양척식주식회사는 1939년 8월 8일 일본 정부에 무수주정사업을 하겠다고 정식으로 서류를 제출한다. 그리고 인가가 난 것은 1940년 1월 25일이었다. 1939년 4월 작성한 서류에 의하면 전라남도가 담당하고 있는 공장부지 정지(整地) 작업은 1940년 4월이면 대부분 끝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지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공장 건설사무소는 공장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확보하고, 공장 설계를 맡기고, 하청회사와 공사계약을 했다. 그리고 8월까지 언덕 위 토지의 정지작업을 마칠 예정이므로, 9월부터 언덕 위에 창고와 숙소를 건설하고, 1940년 4월부터는 언덕 아래 부지에 공장을 건설하려고 계획했다. 그리고

29) 『毎日申報』 1938年 1月 13日.

30) 『東亞日報』 1938年 2月 18日 ; 『毎日申報』 1938年 3月 2日.

31) 조성윤, 2023, 윗글, 24-25쪽.

1940년 9월부터는 각종 기계 설비를 들여와 배치하고 1941년 1, 2월에 시운전을 한 다음, 3월에 정식 조업을 개시한다고 예정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희망 사항이었다. 1942년이 되어서도 부지 정리 작업이 미완성 상태였고, 창고, 숙소, 공장 건물을 짓기 위한 각종 자재가 공급되지 않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완공 예정 시간은 자꾸만 뒤로 밀리고 있었다. 물론 조선총독부 역시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지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을 것이다. 하지만 전시 상황에서는 조선총독부도 건설 관련 자재 원조는 어느 정도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기계와 각종 특수 설비를 갖추는 것까지 돕기는 어려웠는지도 모른다.

한편 1940년 6월 육군으로부터 제주도 주정공장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항공연료 부탄을 제조공장으로 전환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게 된다. 그 뒤 1942년 5월에는 육군 연료창(燃料廠)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부탄을 생산 요청을 받게 되었다.³²⁾ 동양척식주식회사로서는 군 당국의 요청을 거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굳이 거부할 이유도 없었다. 왜냐하면 부탄을 생산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설을 갖추는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다. 무수주정을 생산하기 위한 발효 과정에서 사용하는 효모를 바꾸고, 일부 시설만 교체하면 되는 것이었다.

동척은 주정공장을 1943년도부터 부탄을 제조공장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육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사 건설 자재를 전적으로 육군 연료창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해주었다. 전시에는 군대의 영향력이 다른 행정에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1943년 6월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일본정부에 무수주정 제조 사업을 부탄을 제조 사업으로 바꾼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았다. 부탄을 제조 공장으로 바뀐 동양척식주식회사 제주주정공장은 육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비료소 공장의 제 모습을 갖추었다. 하지만 공장 시설을 1943년 9월에 모두 완성하여, 1943년 10월부터 제조를 개시한다는 계획은 좀 더 뒤로 밀려 1944년 2월이 되어서야 조업을 개시할 수 있었다. 이때부터 원료로 절간(切干) 고구마(甘藷) 15,000톤(4,000,000관), 즉 생고구마(生甘藷)로는 그 3배인 45,000톤(120,000,000관)을 사용하여, 부탄을 1,500톤, 아세톤 750톤, 에탄올 250톤, 합계 2,500톤을 생산 목표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연간 부탄을 1,750톤, 아세톤 875톤, 알콜 290톤을 생산하였다.³³⁾

32) 육군연료창은 1939년 5월에 발족한 육군의 연료 행정과 보급을 전담하는 기구인 육군연료본부 직속 공장이다.

33) 조성윤, 2023, 윗글, 31쪽.

2. 제주도 주정공장의 조직과 운영

제주공장 건설은 제주주정공장 건설사무소(濟州酒精工場 建設事務所)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1943년도 동양척식식식회사 직원 명부가 남아 있는데, <표 5>가 그것이다. 그 중에서 조선지사 사업과 명부에는 “제주주정공장 건설사무소”가 나오고 소속 직원은 22명이었다. 그 중에서 서기(書記) 이정복(李貞馥)을 제외하면 모두 일본인으로 보이는데, 창씨개명을 한 조선인 직원도 있을 텐데, 그 점은 확인이 필요하다.

해방 직후 일본인들이 철수하고, 신한공사가 공장을 운영할 때, 종업원 수는 사무직원 30명, 공원(工員) 253명으로 합계 283명이었으며, 매월 지불하는 인건비는 약 450,000円이며, 1인당 약 1,600엔 정도였다고 한다. 이것을 감안하면 1944년과 1945년 당시 제주주정공장의 직원은 사무직원과 공원을 모두 합쳐 300명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³⁴⁾

<표 5> 제주주정공장 건설사무소 직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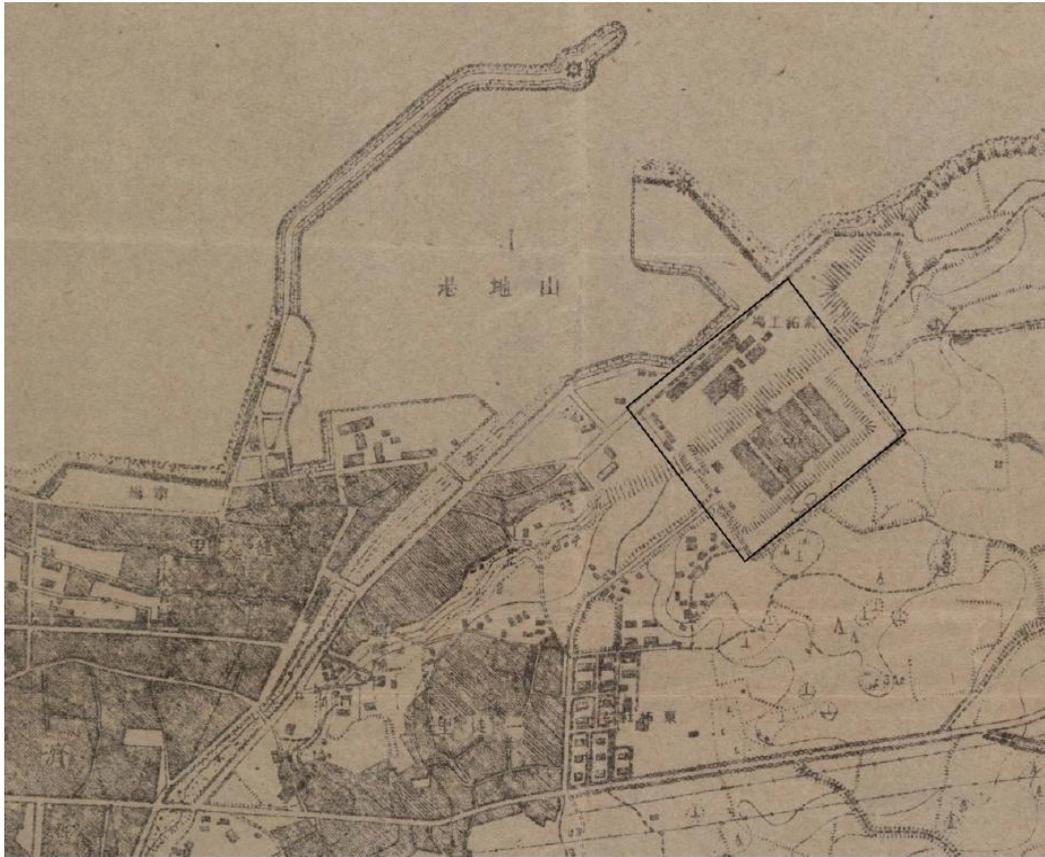
濟州酒精工場 建設事務所 (全羅南道 濟州島 健入里 1148)			
所長	技師	鎌田政郎	
次長	副參事	高橋勝藏	技師 □山□□, 技師 稻荷眞吾
	副參事	古川義雄	技手 佐藤研吾
	書記	吉田勇喜	技手 山本義通
	書記	松尾青青	書記 李貞馥 書記 吉原卓郎
	技手	山田 健	技手 大山廣容
	技手	芝山泰一	技手 佐藤 昌
	技手補	小平省三	技手補 高橋末吉
	技手補	張本武雄	技手補 良元丈夫
(召)	技手補	石丸光彦	書記補 昌原光彦 書記補 橋口秩子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편, 2015, 『수집자료해제집 9: 東洋拓殖株式會社 職員名簿, 新韓公社 내부자료』, 국사편찬위원회.

<그림 1>은 조선총독부에서 1942년부터 1945년 사이에 작성한 지형도의 일부로 여기에는 완성된 제주 주정공장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오른쪽 가운데의 네모난 부분이 공장부지인데, 언덕 윗부분과 아래 부분으로 나뉜다. 두 부분 사이에는 단차가 커서 7미터가 넘는다. 윗부분은 창고가 들어서고, 아래 부분에 공장 건물과 각종 설비, 그리고 사무실, 제품창고 등이 들어섰다. 공장 바로 길 건너편이 부두인데, 오른쪽 빨간색 네모 칸이 들어 있는 부분이 새로 매립하는 매축지로 동척 전용부두로 사용되는 장소다. 왼쪽으로 길게 뻗은 부분이

34) 조성윤, 2023, 윗글, 35-6쪽.

다른 일반 여객과 제주도 회사들이 사용할 부두가 들어서는 곳이다. 이 전용부두와 공장 사이에는 레일을 깔아 도로코로 연결하였다. 그리고 지형도 맨 아래 부분을 관통하는 도로가 일주도로인데, 일주도로와 공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가 완성되어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공장 바깥쪽에 일주도로에 접한 부분까지 보이는 건물들은 모두 공장 기숙사와 부속시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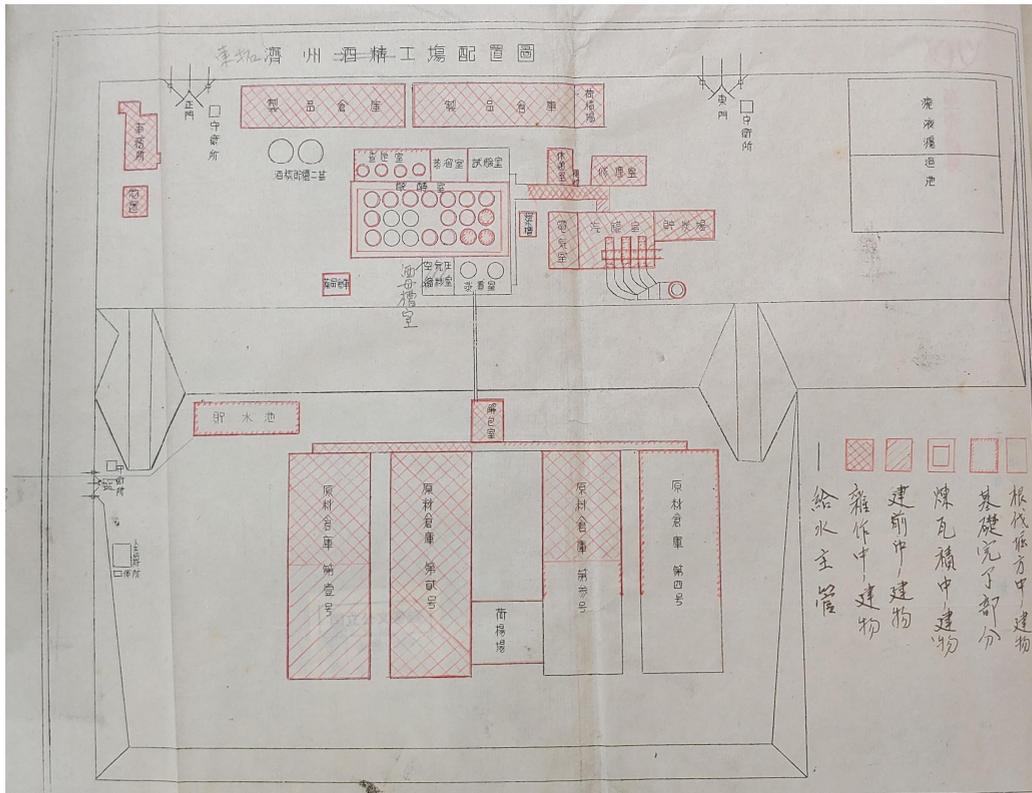
〈그림 1〉 제주항과 주정 공장부지, 그리고 언덕 위의 고구마창고

출처 : 국토정보지리원 근대측량자료, 지형도, 「지형도업무경과보고 1917」.

〈그림 2〉는 1939년 제주항 확장을 시작하고 부지 정지(整地) 작업을 하던 단계에서 만들 공장 설계도이다. 1941년 10월 31자로 한창 건설 중이던 제주주정공장 건설 현황을 그린 공장 배치도를 보면, 공장부지는 모두 13,840평이었다. 크게 언덕 위의 5천5백 평, 아래쪽 8천 평으로 구성되어 있었다.³⁵⁾

35) 濟州港 平面圖面 C1996 濟州島酒精工場敷地關係(其ノ1)(昭和14年1月~15年5月), 일본 국립공문서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공장 건물은 증류실(蒸溜室), 증자실(蒸煮室)이 중심이고, 일부 철근을 넣은 기관실 건물과 목조로 지은 발효실(醱酵室)이 그 옆에 들어섰으며, 그밖에 사무실과 창고, 기타 부속시설, 숙사, 저수지, 술지하조(醪地下槽), 굴뚝(煙突), 착정(鑿井)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2〉 공장부지 배치도

출처 :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영 제주주정공장 자료. 문서번호 財001502024 「濟州酒精工場關係(1941.09.01. ~ 1943.03.31.)」

언덕 윗부분은 창고가 있었는데, 제1호실부터 제4호실까지 배치되었다. 창고 하나가 폭 21.60m × 세로 64m(1382.4평방미터) 440평씩이었다. 서문(西門)을 들어와 뒤편 넓은 공터로 가면 창고 중간에 원료를 자동차 꺾 측량하는 저울이 있었다. 그리고 언덕 끝에는 원료 창고에서 생고구마나 절간고구마를 공장 건물 분쇄실로 보내는 벨트가 놓여 있었다. 창고 앞에는 넓은 마당이 있었다. 그래서 원료인 고구마가 입하(入荷)되면 먼저 창고를 채우고, 자리가 부족할 때는 마당에 야적했다.

3. 미군기의 주정공장 폭격 및 복구 과정

일제 말기 제주도에서 가장 큰 공장인 동시에, 육군연료본부가 지정한 항공기 연료인 부탄을 제조공장이었던 동양척식회사 직영 제주 주정공장은 1945년 6월 어느 날 미군 폭격기에게 폭격을 맞게 된다. 공장 서류 중에는 폭격을 당한 내용을 보고한 서류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정확한 날짜와 피해 상황은 알 수 없다. 그런데 해방 직후 제주도 주정공장의 상황을 가장 잘 전해주는 자료는 <신한공사 직영 제주 주정공장 감사보고서>와 <Audit Report on Cheju Pure Alcohol Co.(1945.8.8.-1946. 8.31.)>이다. 한글 보고서는 1946년 12월 신한공사 본부에서 파견한 한국인 감사원 박승렬과 김창기가 작성한 것이고, 영문 보고서는 미군정이 파견한 회계 감사관 Joseph Hosevally가 작성한 문서로, 해방 직후부터 1년 동안의 제주도 주정공장의 운영 전반을 감사한 결과를 상무부 감사국장에게 보고한 보고서이다. 현재 미국국립문서보관소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몇 년 전에 국사편찬위원회가 복사를 해 와서 복사본을 소장하고 있다.³⁶⁾

보고서 맨 앞부분에 공장의 역사와 복구공사 내용을 적어 놓았다. 아마도 공장 간부들로부터 들은 보고를 요약한 것으로 짐작된다.

1. 공장의 역사

공장 설비를 하던 중에 제2차 대전에 봉착하여 항공기 연료인 아세톤, 부탄을 설비로 전환하여 1944년 2월에 첫 제품을 생산하였다. 그 후 다시 일본정부의 명령에 의하여 당초 계획대로 1944년 9월부터 주정공장으로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왔다. 1945년 6월 공폭(空爆)으로 공장 중요 기계 외에는 대부분 파괴되거나 소실되어, 동년 10월 중순부터 복구공사에 착수하여 약 6백만 엔을 투입하여 금년 7월말 제1차 복구공사 완료하여 8월 초순부터 조업을 개시하여 운영과 동시에 제2차 복구공사 진행 중에 있다.

2. 복구공사

전쟁이 끝난 다음, 모든 종업원들은 태평양전쟁 시 비행기 폭격으로 파괴된 공장을 복구하는 일에 종사했다. 외부 청부업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2차 복구 계획으로 새로운 창고를 짓고 있다. 전후에 본사에서 현금 약 5,800,000엔을 보내왔다. 그리고 1946년 10월 8일 현재까지 복구공사에 사용한 비용은 총액이 6,247,000엔으로 늘어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방 후 본사에서 송부하여 온 자금은 약 5,800,000円이고, 10월 8일 현재까지 복구공사에 사용한 비용은 약 6,247,000엔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36) 「신한공사 직영 제주 주정공장 감사보고서」 1946년 12월 22일 작성. 영문본도 남아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한글본과 같지만, 미군의 독자적인 의견과 자신의 여정을 기록한 부분이 추가되어 있음. Cheju Pure Alcohol Plant, 1945.8.-1946.8. RG331, SCAP, Office of Comptroller, Audit Division, Correspondence File, 1945-52, Box 184, File 5: Audit of NKC.

위의 내용은 「신한공사 직영 제주 주정공장 감사보고서」 한글본의 내용인데, 정리하면 1945년 6월에 미군기의 공중 폭격이 있었고, 그 때 제주항과 주정공장이 모두 폭격을 당했다. 조업이 중단되었고, 그 뒤부터 대부분의 직원과 공원은 공장 복구 작업을 해왔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해방이 된 후에 본사에서 복구자금으로 현금 약 5,800,000엔을 보내왔다고 했다. 이만한 돈이라면 공장을 완전히 새로 짓고도 남을만한 돈이다. 이 정도 돈을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보내왔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아마도 공장 건물과 설비가 보험에 들어 있었고, 6월에 폭격으로 공장의 대부분이 불에 탄 것을 보고하자, 곧바로 보험회사로부터 복구자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전쟁 끝나기 직전, 그러니까 8월 15일 이전에 돈이 도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감사보고서 내용 중에는 “공폭(空爆)으로 공장 중요 기계 외에는 대부분 파괴되거나 소실되어”라고 했지만, 해방 후에 공장에서 근무했던 분의 증언에 의하면, 생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설비들은 대부분 튼튼하게 벽돌로 지어진 공장 안에 있었는데, 이 설비는 별로 다치지 않았고, 해방 후 공장 가동할 때도 이 설비를 이용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공장 본 건물의 피해는 적었고, 외부에 있던 대부분의 작은 목조 건물들과 언덕 위에 있던 고구마 창고도 모두 불에 탔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탐라문화연구소 팀이 면담했던 사람들의 내용에는 강제동원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공장이 폭격을 당할 때의 상황을 직접 목격한 이야기도 남아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보기로 하자.

A. 질문자 : 미군기가 공습하고, 비행기 왔다 갔다 그런 거 못 봤어요?

김 : 미군 비행기가 와가지고 기관총 쏠 때도 보고.. 동부두에 습격해 폭탄 때릴 때도. 그 때는 한 4-5월 중이라..

이 : 그거는요.. 나도 목격 했습니다.. 나는..학교도 안간 대여섯 살 때 탐동 바로 옆에..해짓골..살았는데.. 서부두 가서 목욕을 하는데.. 그 때는 다 발가벗고 헨거죠.. 지금 등대 밑으로 말이죠.. 비행기가 짝 날아와서 우리는 애들은 이야 신난다 하는데, 웬걸 동부두 막 지나면서 폭탄 떨어트리고. 지나가는데. 연기가 그냥 올라와서 발가벗고 집드래 뛰어가고..(김경일, 1925년생, 2005년 12월 10일 지영임 면담)

B. 우리가 한라산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라산 꼭대기에서 앉아 제주 시내 구경합니다. 미국 비행기, B29가 날아와 제주시에 폭격을 해서 짝 날아가는 게 보인다고. 그리고 또 산지 부두에 소이탄 던지는 거 다 보여요. 전부 그래서 폭발하는 것도 보이고.

미국 놈 비행기가 큰큰헌 거 허고. B29 큰 거 날아와서 폭격해가면 하는데, 산지에 동부두에 동척회사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놈들이 와가지고 소이탄이엔 헌거 막 떨어친다 말ियो. 탁탁탁 폭발하는 것도 보이고.(남인희, 1924년생, 2005년 10월 15일 허호준 면담)

- C. 폭격은 하루만. 지나 가멍 떨어져 부니까 일본 놈들 배도 타고 주정공장 다 불타버렸지 뭐. 그 때 동부두, 그디 주정공장이 있어. 옛날에 일본 놈 오란, 그디 하근 거 일본 놈 식량 고튼 군수품 주정공장 앞이영 막 디밀어 놓잖아. 그 때 미군 미국 B29가 와서 폭격해버렸지. 그 수류탄인가 몇 개 터트려 부니까 그냥 배도 다 부서지고, 식량도 불 붙영 한 보름 타실 거여. 해방되기 헌 2개월이나 헌 3개월 전에.(고태일, 1925년생, 2005년 12월 17일, 지영임 면담)
- D. (임두병) 미국기가. 당시에는 B-29가 큰 거라 해가지고 공습을 왔는데, 동부두에 동척회사에는 항상 고구마, 생기리라고 절간(切干)한 거 산더미같이 데며놓고, 또 군량미가 귀하니까. 산더미같이 늘어놔 가지고 더꺼 뉘든 것을 폭격을 했어. 폭격하니까 한 2주 이상 탕디다. (고창현) 고구마 말려가지고 뼈때기 창고에 불 붙어부나네 큰 창고에 이 부근 고구마 뼈때기는 전부 받아당 데며놓은 거. (임두병 1924년생, 고창현 1929년생 부부, 2006년 1월 18일, 허호준 면담)
- E. 제주시에 나와서 트럭으로 운반을 하러 갔습니다. ... 알코올공장이 제주도 서부두에 있었는데요. 거기가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거기 알코올도 실러 가 가지고서 비행장으로 실러 오기도 했습니다. 뭐 어디서 쓰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도 공급해 오라고. 부랴 실으라고 해서 그런 일을 한 2주정도 했는가를 모르겠수다. 그 다음부터는 아주 심한 노동에 들어갔지요. (고태춘, 1928년생, 2005년 9월 8일, 조성윤 면담)

주정공장 관련 문서에서도 그랬지만, 위의 면담록에서도 정확한 폭격 날짜는 나와 있지 않다. 다만 1945년 6월 중에 폭격이 있었고, 제주 시내에 거주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라산 중턱 어승생에서 일본군 진지 구축작업을 하던 병사들도 목격했던 사건이었다. 물론 그 시기에 미군 전투기가 여러 차례 제주도각 지역에 나타나 기총소사를 쏟아 부은 적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폭격기의 조준 폭격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만큼 이 폭격은 제주도 주민은 물론 일본군에게도 커다란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D사례에서 보듯이 1945년 3월부터 제주도에 들어오기 시작한 일본 육군 제58군 예하부대들은 트럭을 비롯한 많은 운송 및 전투 장비를 들여왔는데, 그 운용을 위해서 필요한 기름의 상당 부분을 주정공장의 생산물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것이 폭격으로 어려워졌을 것이다.

폭격은 제주항에 정박한 선박들과 주정공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주정공장에서는 언덕 위의 창고 안은 물론 야외에 쌓여 있던 고구마들이 모두 불에 탔는데, 이것을 제주 시내 주민들이 모두 지켜보았을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정공장 부지의 건물 대부분이 부서졌지만, 중요한 설비들이 남아 있었다. 생산은 중단되었고, 모든 직원과 공원들이 파괴

된 공장 잔해를 치우고, 살아남은 공장건물을 정비하는데 힘을 쏟는 실정이었다.

그리고 공장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일본인 직원들은 모두 떠났고, 더 이상 그들에게 지시를 할 본사가 사라졌다. 그들은 동양척식주식회사 조선지사 직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남아 있는 한국인 직원들을 중심으로 자체 운영 조직을 결성하여 운영해 나갔다.

III 제주도 주정공장에서의 강제동원

1. 일제 말기 제주도에서의 강제동원 양상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조선인 노동력 동원은 크게 조선 내 동원과 조선 외 동원으로 나눌 수 있다. 조선 내 동원은 조선의 같은 지역 내 또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말한다. 주로 거리가 가까운 지역 주민들을 동원하는 경우이다.

조선 외 동원이란 조선에서 일본, 사할린, 남양군도, 중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동원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조선인 노동력 동원이라고 하면, 주로 조선 외 동원, 특히 일본으로의 동원에 연구가 집중되어 왔으며, 상대적으로 조선 내 동원은 아직 연구가 부족하다. 조선 내 동원에 대한 연구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배경 중 하나로 일본에서 1990년대 이후 활발해진 한국인에 의한 전후보상운동이 조선 외, 특히 일본으로 동원되었던 피해자들에 의해서 일어났고, 재판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러다 보니 강제 동원은 곧 일본을 비롯한 외지로의 동원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된 데에도 원인이 있다.³⁷⁾ 그 영향을 받아 2005년부터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많은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자신이 피해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내왔다. 연구자도 조사를 시작하면서 강제동원 체험자들을 만났을 때 많은 분들이 자신이 겪은 일을 증언하면서도 자신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들었다.

제주도에서의 주민동원은 194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제주도에서는 일본 해군에 의해서 알프르 비행장이라는 대형 군사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알프르 비행장은 1933년도에 처음 「불시 착륙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할 때만 해도 6만평 규모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일본 해군은 적극적으로 이 비행장을 활용하기로 작정하고, 20만평 규모로 증설계획을 세운다. 증설 공사가 채 진행되기도 전에 제주도 알프르 비행장은 중국 남경 등 중요 도시를 폭격하는, 이른바 도양폭격의 중심 기지가 된다. 그 이후 알프르 항공기지에는 오무라 항공연습부대가 주둔하고, 확장 공사도 계속되었는데, 전쟁이 끝날 무렵 63만 평에 이르는 대형 비행장이 되었다. 그런데

37) 안자코 유카, 2003, 「총동원체제하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 정책의 전개」, 『한국사학보』 제14호, 319쪽 ; 지영임, 2008, 「구술을 통해 본 일제하 제주도 내 강제동원의 실태와 특징」, 조성윤 엮음, 『일제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65-266쪽.

그 공사는 적어도 1930년대까지는 일반 주민을 강제 동원하지는 않았다. 해군이 일본의 토목회사에 용역을 주면 관계자들이 들어와 주민을 모집해서 작업을 했다.³⁸⁾ 제주도에서는 그밖에도 1930년대 말부터 1940년대 초에 걸쳐 제주항을 확장하는 축항사업과 제주도 최대 규모의 공장인 동양척식회사 제주주정공장 건설공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공사 진행 과정을 보면 제주도내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 해군은 1941년부터 알프르 비행장을 확장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대정 지역주민 강필봉의 증언에 의하면 1941년에 오무라(大村) 병사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인천에서 기술자가 왔고, 그는 이 기술자 밑에서 군대 막사를 짓는 작업을 함께 하면서 목수 일을 배웠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해부터 194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줄곧 작업에 동원되었다고 증언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이었던지는 알 수 없지만, 목조 건축물을 계속해서 지어나가고 있었다는 추정은 충분히 가능하다.

대정 무릉리가 고향인 문상진(1926년생)도 “모슬포 비행장에 처음 간 건 열 일곱 살 때였어. 그때 대동아전쟁 나니까 그곳 비행장에서 한 3년 계속 일했지. 처음 모슬포 비행장 갈 때는 비행장을 막 확장시킬 때주게. 처음에는 비행장을 그렇게 크게 확장시키지 않았다가, 이젠, 그 지나사변이 나서, 왜놈들이 전쟁을 하게 되니까 비행장을 아주 확장 시켰 주게. ... 그렇게 비행장을 한 3년 해도 다 못했어. 저, 삼하고 곡괭이, 그런 걸로 일을 하니까 몇 년을 끌어버린 거지.”라고 하여 3년 동안 동원되었다고 말하였다.³⁹⁾

당시 알오름 진지구축 작업에 동원됐던 오형승(1926년생, 2006년 12월 10일 채록, 채록자 허호준) 역시 “18살 때인 1942년에 동리 주민 30여명과 함께 알프르로 동원된 후, 알오름에 갠도진지동굴 굴착작업에 3년 동안 투입됐다. 알오름에서 갠도진지를 만드는 일은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었다. 거미줄형으로 미로같이 굴착했는데, 십장이 위치표시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방향을 말해주곤 했다. 작업에 동원된 사람들은 대부분 제주도 주민들이었고 십장을 육지 사람들이 맡기도 했다. 너비는 한 칸(8자), 높이는 3~4m 정도인데, 굴착에는 곡괭이를 주로 이용했고, 천정은 나무사다리 위에 올라가 작업했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증언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제주도 항공기지 제3차 확충공사에 관한 것이다. 2차 공사를 마친 것이 1938년경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후부터 제주도 항공기지는 오무라 항공기지 파견대로서 자리를 잡았고, 훈련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런

38) 조성윤, 2012, 「알프르 비행장 : 일본 해군의 제주도 항공기지 건설 과정」, 『탐라문화』 4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39) 조성윤·지영임·허호준, 2007, 윗글, 368쪽.

가운데 알오름 갯도진지동굴을 비롯한 모슬포 알드르 비행장과 부속 시설, 식량저장소, 연료고, 목공장, 화약고 등은 1941년부터 일본 해군에 의해 구축되기 시작해서, 1945년까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⁴⁰⁾

한편 해군에 비해서는 한참 늦었지만, 육군이 제주도 북서쪽 제주시까지 외곽지역인 정뜨르에 새로운 비행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정뜨르 공사는 태평양전쟁이 시작된 후인 1942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전쟁 막바지인 1945년 봄이 되면 활주로 등 시설 대부분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비행장을 이용할만한 비행기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 비행장은 1945년 3월 제주도에 들어온 제58군 사령부와 예하사단 중에서 제주도 지역을 담당하는 제96사단이 부대 주둔지로 이용했고, 지금은 제주국제공항이 들어서 있다.

한편 1944년 후반부터 제주도 동쪽 외곽지인 진드르에 육군 서비행장 공사가 시작되었다. 때문에 1945년이 되면 정뜨르 비행장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진드르에 동원 인력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이 공사는 1945년 6월경까지만 진행되고 중지되었다. 아마도 제58군 사령부가 비행장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중지시킨 것으로 생각한다.

비행장을 개설하기 위한 공사에 많은 제주도민들이 동원되고 있었지만, 1944년 말까지 제주도에선 일본군의 소수의 병력이 배치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일본군이 미군에 밀려 오키나와까지 점령당하는 상황에 이르자, 일본군 스스로 본토결전(本土決戰)을 위한 구체적인 작전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렸다. 그 때 제주도가 미군 침투 가능성이 높은 7개 지역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었고, 그 결과 제주도에서 결7호작전(決7號作戰)이 구체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아시아 태평양전쟁의 막바지에 본토결전을 대비하여 제주도에 58군 사령부가 설치되었다. 사령부와 함께 96사단이 1945년 3월에 제주도에 들어왔고, 다음으로 108여단이, 뒤를 이어 만주의 관동군(關東軍)이었던 111사단과 121사단이 전격적으로 제주도에 배치되었다. 따라서 3월 이후 제주도의 여러 항구에는 병력과 군수물자를 실은 배들이 끊임없이 들어왔고, 들어온 병사들은 제주도 전역에 배치되었다.

제주도 서남부 지역, 즉 대정과 안덕 지역은 미군이 상륙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일본군은 이 지역에 만주에 있던 관동군 111사단을 배치하고, 다양한 군사시설을 구축했다. 특히 안덕면의 군산에서 월라봉, 산방산, 송악산으로 이어지는 라인에는 오름마다 대규모 지하갱도를 파놓았다. 이 지역은 111사단이 중심이었지만, 동부지역 방어에 투입되었던 108여단으로부터 상당한 병력을 지원받아 제주도 방어의 일선을 담당하였다.

40) 조성윤, 2012, 411-412쪽.

이에 비하면 121사단이 담당했던 서북부 지역은 일본군의 상륙이 어려운 지점으로 판단되어 넓은 지역을 적은 병력으로 수비하는 형태로 짜여졌다. 그것도 명월-금덕-소길 등 해발 3000m 이상 되는 고지대에 연대급 이상의 본부 숙영지를 설치하고, 말이나 포나 식량 전투 준비물은 3백고지 이상 주둔했던 곳에 저장을 했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주둔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양상은 96사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군단 사령부가 주둔한 제주시를 제외하면, 연대급 본부는 산천단과 명도암 등 고지대에 자리를 잡았었다.

강종화(애월읍 장전리, 75세)의 증언에 따르면, 소길리에 121사단 예하부대인 대대 또는 중대 규모의 병력이 주둔했다. 이 군인들이 저지대로 내려와서 구업, 신업 일대 지금 일주도로변 조금 위 언덕 있는 곳에 천정이 없는 교통호, 또는 무개호(無蓋壕)를 100m-200m씩 이어가면서 파다고 한다. 일단 파는 작업이 끝나면 그대로 두고 다시 수십 미터 위로 올라가서 또 무개호를 파면서 계속해서 진지를 구축해갔다. 이것은 정규전을 예상한 진지라고 생각된다. 일단 저지대에 구축해 놓은 무개호에서 적을 맞아 전투를 하다가 밀리면 이미 구축해 놓은 고지대의 진지로 이동한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차례로 방어를 할 수 있는 진지를 마련해 둔 것이다.

바닷가에서부터 지대를 높이면서 여러 선으로 진지를 구축했다면, 보병부대가 해안선에 소대, 또는 중대별로 주둔할 것이고, 그 뒤쪽에 대대, 고지대에 연대 본부가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미군이 작성한 지도를 보면 보병부대가 배치되어 있는 곳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16번 도로를 따라서 그 위쪽으로 계속 이어가면서 포병부대를 배치한 것을 보면, 한라산까지 4개의 방어 라인, 즉 해안지대와 일주도로 바로 위쪽 고지대 → 중산간 도로 전후해서 구축된 주저항진지 → 동서부 산업도로 지역 사단 본부 위치한 지역의 진지 → 마지막 복곽진지(複郭陣地)를 중심으로 한, 붉은오름 돌오름 물장오리 구린굴 평굴 등을 잇는 라인이 한라산 최후 저지선이 아닌가 싶다. 일본군은 이렇게 미군 상륙에 대비해서 제주도 전역에 인공 갱도를 파고, 참호를 구축했다.⁴¹⁾

한편 알프르 비행장과 주변 시설을 중심으로 확장공사를 추진하던 해군 시설대 201부대가 1944년 말부터는 제주도 전역에 해상 특공 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해안특공기지로 계획한 곳은 5개소였다. 한경면 차귀도 앞 수월봉, 송악산 해안, 함덕 서우봉, 서귀포 황우굴, 성산포 일출봉의 5군데가 대상이었는데, 1945년 4월에 도착한 신요(震洋)부대가 배치된 곳은 수월봉, 황우굴, 성산 일출봉의 3곳이다. 일본 해군의 특공부대 중에서 제45·119·120진양대(震洋隊)가 배치되었는데, 제45진양대는 성산포 일출봉 일대에, 제119진양대는 서귀포

41) 조성윤, 2006, 「일제하 제주도 일본군 전쟁유적지 조사 연구의 방향과 과제」, 국제학술대회 「일제말기 제주도와 일본군 전쟁유적지」 발표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한라일보사, 2006년 2월 28일.

해안에, 마지막으로 제120진양대가 서남부 지역 한경면 수월봉 해안에 배치되었다.⁴²⁾ 가장 먼저 공사가 시작된 곳은 성산포로 1944년 말부터 전라도 지방의 광산 다이내마이트 기술자들을 대거 끌어들여 공사에 투입했다. 성산포에 구축한 진양(震洋)을 격납할 갯도는 24개를 뚫었는데, 대략 공사가 3월말에 끝났다. 그리고 나서 기술자들은 다시 서귀포와 수월봉으로 이동해서 공사를 했다. 부대 배치는 4월 중에 이루어졌는데, 이 때문에 성산포의 제45진양대만 정상적으로 훈련이 이루어진 반면, 수월봉에 배치된 제120진양대는 고산국민학교에서 숙식하면서, 6월에야 마무리되는 공사를 기다려야 했다. 서귀포에 주둔한 120진양대 역시 갯도 위의 밭에 텐트를 치고 주둔했지만, 정상적인 훈련을 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다.⁴³⁾

이상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도에서의 주민의 강제동원 지역과 대상은 일본군의 전쟁준비 전략과 상황 변화에 맞물려 시기별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1940년대 초부터 1944년까지는 비행장 공사가 중심이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일본 탄광과 각종 군수공장으로의 동원이 이루어졌다. 1944년 말부터는 제주도 안에서 해안 특공기지 건설 공사가 진행되었고, 1945년 3월 제58군 사령부가 설치되고, 결7호작전 준비를 위해 쏟아져 들어온 7만 명이 넘는 부대는 병사들이 직접 지하호와 참호 구축에 동원되기도 했지만, 각 지역별로 주민들을 필요로 할 때마다 차출되었다.

한편 제58군 사령부는 들어오자마자 제주도에 징집영장을 받은 청년들을 한꺼번에 소집하여 각 부대에 배치하였다. 제주도 청년들이 병사가 되어 배치된 부대는 대부분 총 대신 삽을 지급해서 각종 진지 구축에 집중 투입되는 노무부대였다. 이 시기 가장 큰 군사시설공사는 어승생 일대에 야전 사령부로 사용할 지하호와 각종 참호를 구축하는 일이었다. 노무부대들은 대부분 이 곳에 배치되었다. 그들은 일반 주민들과는 분리된 채, 천막으로 된 막사에서 거주하면서 공사에 동원되었다. <표 6>의 면담자는 제58군 사령부가 제주도에 들어온 다음에 제주도에 들어온 부대에 입대해서 병사가 되었던 사람들로 전체의 약 1/4에 달한다. 이들 중에서 96사단 소속으로 산천단, 명도암, 돌오름 등, 사단본부와 연대본부의 진지구축 공사에 동원된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한라산 중턱의 어승생 일대에 투입되었다.

주민들은 비행장이나 갯도구축 외에 각종 군수물자 운반, 항만이나 도로건설, 군인막사 등의 건축에도 동원되었다. 군수물자는 비행장 건설에 필요한 각종 건축 자재, 군인과 동원 노동자의 식량, 생필품, 무기류 등이었다. 이러한 군수물자는 대부분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말과 마차를 징발하여 운반되었다. 일제는 말과 말 소유주를 동시에 징발하기도 하고

42) 震洋會, 1990, 『寫真集 人間兵器 震洋特別攻撃隊』, 國書刊行會.

43) 조성윤, 2012, 「알프르 비행장 : 일본 해군의 제주도 항공기지 건설 과정」, 『탐라문화』 4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430쪽.

인력만 따로 동원하여 공출해낸 말을 끌고 수송 작업에 투입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모슬포항에서 알뜨르비행장 등지로 물자를 운반하거나, 제주항에서 한라산, 산천단 등의 군부대에 물자를 운반하기도 하고 항구에서 각 오름으로 건축자재를 운반하기도 했다. 또한 전쟁말기에 다수 물자와 군인들이 들어오면서 항만 보수공사가 빈번히 이루어졌다. 주민들은 제주시 화북동 축항공사나 별도축항공사장으로 동원되어 작업을 하였다. 그 외에 하치마키 도로 개설공사장, 군인 막사건축공사장 등으로 동원되기도 했다.⁴⁴⁾

지금까지 제주도 주민을 동원한 구조는 이병례가 조사한 것이 가장 체계적이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주민 동원 체계는 행정망을 기본 단위로 진행되며, 부분적으로 청년단 등 관 주도 단체가 동원된다. 군(軍)과 조선총독부가 협의하여 도내(島內)에 군사 시설물 구축이 정해지면 필요 인력을 읍면 단위로 내려 보내고, 읍면에서는 각 동리별로 동원 인원을 지정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행정구역은 1915년 도제(島制)가 실시되어, 도사(島司)가 경찰서장을 겸하면서 섬의 행정을 관할하고, 그 밑의 행정단위는 13개 읍면과 167개 리로 구성되었다. 13개 읍면은 1935년도 한 차례 명칭 변경이 이루어진 후, 해방될 때까지 167개 리로 계속되었다.

각 읍면 명칭과 해당 동리 숫자는 제주읍 25개의 동리, 애월읍 19, 한림읍 23, 대정면 13, 안덕면 10, 중문면 11, 서귀면 11, 남원면 9, 표선면 6, 성산면 11, 구좌면 14, 조천면 10, 추자면 5개의 동리이다. 제주도 각 읍면은 평균 약 13개 동리로 나뉘어지며, 인구는 평균 약 1만 5천여 명 정도로 구성된다. 각 동리는 최소 3~4개 부락으로 나뉘어지고 각 부락의 호수는 평균 약 70여 호 정도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동리 단위를 관리하는 이장(구장)은 2백~3백여 호를 담당하게 된다. 노동력 있는 주민들은 거의 명부에 등록되어 필요시 징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1940년부터 시작된 일련의 주민조사와 노동력 조사 등을 통한 것이었다.⁴⁵⁾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고립된 섬이라는 조건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동원이 쉽지 않았고,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도내(島內) 동원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해군이 나 육군이 제주도에서 비행장 공사를 할 때는 먼저 조선총독부에 협조요청을 하고, 조선총독부가 전라남도를 거쳐서 제주도청에 지시사항이 전달되었을 것이다. 사업을 맡아 추진하던 담당기구는 제주도청(濟州島廳)이고 책임자는 도사(島司)였다.⁴⁶⁾

44) 이병례, 2007, 「일제말기 노동력동원의 일상화와 민중의 대응방식」, 『역사연구』 제17호, 역사학연구소, 127쪽.

45) 이병례, 앞글, 133쪽.

46) 도사(島司)라는 직책은 섬지역의 행정책임자를 가리키는 특수행정직이었다. 상세한 것은 다음을 참고할 것. 高江洲昌哉, 2015, 「日本「内地」における島庁の設置と植民地における島庁の設置」, 『アーカイブズ学研究』 No.22, 日本アーカイブズ学会.

2. 주정공장에서의 제주도민 강제동원의 실태와 특징

제주주정공장은 일본 정부가 석유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선택한 산업용 알코올을 생산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지시에 따라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사업이지만, 총독부의 권유를 받아들여 사업 주체가 된 것은 동양척식주식회사였다. 총독부는 공장건설을 위해서 다양한 특혜를 베풀었다. 그동안 200톤 정도의 배밖에 들어오지 못하던 제주항을 1,000톤 넘는 배가 들어와 정박할 수 있도록 항만을 확장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한편, 제주항 바로 앞에 있는 빈터를 주정공장 부지로 선정하고, 정지(整地)작업을 해서 싼값에 동양척식회사에 제공하였다. 이렇게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동양척식회사는 1939년 여름에 기공식을 갖고 공장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계획과는 달리 부지 정지작업에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전쟁이 터지면서 자재 조달이 늦어져서 공장과 창고 및 사무소 건물을 완성하고 기계 설비를 모두 갖춘 것이 1943년 9월이었다. 그 뒤 시험 운전을 거쳐서 준공식을 갖고 산업용 알코올을 본격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1944년 2월이었다. 이때부터 미군폭격기가 제주항과 주정공장을 폭격한 6월까지의 순조롭게 알코올 생산을 계속했지만 생산 기간은 1년 반도 미치지 못하는 짧은 기간이었다.

제주도에 미군폭격기가 폭탄을 퍼부은 것은 1944년 6월 제주항과 주정공장 한 차례뿐이었다. 이 폭격은 미군이 제주항과 주정공장이 제주도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설임을 알고 실시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폭격으로 대부분의 목조 건물과 고구마 창고는 모두 불에 탔지만, 그래도 벽돌로 지은 공장 본건물은 일부만 파손되고 내부 시설은 유지할 수 있었다. 당시 폭격 이후 현장을 수습하고 공장을 재가동하는 일은 공장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제주도 행정 당국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파괴된 공장을 어떻게 수습하고 및 재건했는지의 구체적인 과정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연구자가 검토한 일본국립공문서관에 보관된 공장 관계 서류에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았다.

제주 주정공장은 2005년과 2006년에 강제동원 피해자 면담을 하면서 전혀 주목하지 못했던 동원장소였다. 실제로 일제말기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던 동원장소는 대정읍 모슬포의 알뜨르 비행장과 송악산 일대와 제주시 서부지역의 정뜨르 육군 동비행장, 그리고 제주시 동부지역의 진드르 육군 비행장이었다. 모두가 군사시설이요 비행장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1944년 말부터 해군이 해안가에 만들기 시작한 5곳의 해안특공기지 역시 군사시설이었다. 1945년 3월 제58군사령부가 설치되고 나서는 3개 사단과 1개 여단, 그리고 많은 독립특수부대들을 포함하여 약 7만5천 명의 엄청난 인원의 병사들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이때는 제주도 전역을 군사 기지화 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병사들도

직접 진지구축작업에 투입되었지만, 제주도에 남아 있는 인력들은 반복해서 투입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때 비행장 공사에 투입되어야 할 인력을 빼돌려 주정공장에 투입하기도 했다는 생각이 든다.

2005년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를 받으면서, 그리고 제주도에 남아 있던 일본군 군사시설 흔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말한 여러 곳들이 조사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주정공장이 주민들의 강제동원 장소라고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다. 물론 주정공장이 어떤 공장인지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기도 했다. 그래서 주민들 중에서 자신이 주정공장에 가서 일을 했다고 말을 할 때도 조사원들은 그 말을 더 자세히 들으려 하지 않고 알뜨르나 정뜨르 비행장으로 옮겨갔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을 던지곤 했다.

동양척식회사 직영 제주주정공장은 주민들의 강제동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현재 접근 가능한 자료는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가 각각 조사한 면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1〉은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가 2007에 발간한 『제주도 군사시설 구축을 위한 노무 병력동원 진상조사』 보고서 III. 노무동원실태의 28쪽에서 38쪽까지 나오는 〈표 2〉 「제주도 출신 생존자 174명의 동원장소·시기」 중에서 작업내용에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관한 진술을 한 6명을 뽑은 것이다.

〈표 1〉 제주도 노무동원 피해 생존자 중에서 동척회사에 동원된 경우

이름	당시나이	거주지	작업 내용
문○송	18세	남군 남원읍	동척 회사 건축현장 운반노동(1943년 8월~10월) 축항공사(1945년8월)
강○길	15세	남군 남원읍	알뜨르 비행장, 진뜨르 비행장, 주정공장 고구마 푸대 운반(1944년)
김○길	17세	남군 남원읍	제주시 알코올 공장 건물 공사(1944년 2월)
고○규	17세	남군 남원읍	동척 회사 폭격 맞은 건물 수리 20일간 (1945년6월~8월)
강○재	17세	남군 남원읍	정뜨르 비행장 1944년7월~8월. 동척 회사 건물 보수
김○병	17세	남군 남원읍	제주시 부두 동척회사 2회 동원 (1944년10월~11월/ 1945년6월~8월)

그리고 이 보고서 부록 104쪽부터 214쪽까지는 33명의 면담 요약문이 실려 있다. 그런데 부록에는 <표 1>의 6명 중에서 문○송, 강○길, 김○길, 고○규의 면담 내용만 실려 있고, 강○재와 김○병의 면담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의 4명의 면담 내용을 주로 분석하면서, 강○재와 김○병은 <표 1>에 밝힌 내용만 참고하도록 한다. 다음은 4명의 동원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남원을 위미리에 살던 문○송은 그의 나이 17살인 1942년부터 동원되기 시작했다. 8월 추석을 지내고 가장 먼저 갔던 곳이 동척회사였다. 그곳에서는 돌과 흙을 집을 짓는 공사장까지 나르는 일과 땅 고르는 일을 열흘 정도했다. 그리고는 모슬포 비행장으로 이동했다. 비행장에서는 일본 토목회사인 다다구미(多田組) 밑에서 일을 했다.⁴⁷⁾

남원을 상원동에 살던 강○길은 1941년도 봄에 그의 나이 15살 때 처음 모슬포 비행장 공사에 갔다. 그 다음에는 부둣가에 있는 주정공장에 가서 절간(切干) 고구마 부대(負袋)를 운반하는 일은 1개월 했다. 주정공장에는 해방될 때까지 매해 가서 일을 했는데, 돈을 받은 적은 없었다.⁴⁸⁾

남원을 위미리에 살던 김○길은 1945년에 조천읍 신촌리 진드르 비행장 터를 닦는 작업에 동원되어 20일 동안 일을 했다. 이어서 주정공장이 미군 공습을 받아 부서진 곳에 동원되어 파손된 것을 수리하는 복구공사하는 데서 목공 일을 했다.⁴⁹⁾

남원을 위미리에 살던 김○규는 1930년생인데 1945년 3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6월이 되어서 동원되었는데, 제주시 정뜨르 비행장으로 소집되어 갔다. 정뜨르 천막에서 숙식을

47) 열일곱 살(1942년)에 동척회사에서 도로꼬 일을 했지. ... 동척회사는 알콜공장인데, 동척 회사에 제일 먼저 가서 살다가, 그 다음에 모슬포 비행장 다다구미(多田組) 비행장 닦아 놓은데 가서 군장 파고, 또 포거는 것도 만들고, ... 처음 동척회사에 원래 나이로 17살 때 갔어. 가을쯤에 팔월 음력 추석 지내고 갔어. 알콜 공장에서 일하는 건 열흘. 그리고 나서 군에서도 다른데 교대시켜 주지. ... 동척회사에서는 도로꼬 일. 그거 도로꼬가 바쁜 일을 정해서 쇠를 기차에 집어넣는 거야. 거기서 돌도 싣고 흙도 실어서 비워가는 거야. 그래서 또 올라가지고 또 돌맹이를 실어서 또 가서 비우고 집터 일 하지. 알콜공장 가 보니까 거의 막 했대. 땅 고르는 일 10일 하고 집에 왔어.(문천송, 1926년생, 남원을 위미리, 2006년 4월 25일 면담, 보고서 160쪽)

48) 처음에 모슬포 비행장 공사에 한 15살 때 쯤 갔어. 그때가 1941년쯤에 갔었을 건데 봄 같아. ... 그 다음엔 부둣가에 있는 제주시 주정공장, 거기 술 공장도 전부 이사장이 보냈어요. 거기서는 고구마 포대기 운반, 고구마 건조시킨 걸로 술을 만드는데, 그것 운반하는 일을 한 1개월 했어. 월급은 다 없어. 해방될 때까지 매해 갔어.(강춘길, 1926년생, 남원을 상원동, 2006년 4월 25일 면담, 보고서 157쪽)

49) 제주시에 그때 알콜공장이 있어. 부둣가에. 일본이 공습 받았을 때, 공장이 부서졌어. 파손된 거 수리하는데 가서 나는 목공 일을 좀 했어. ... 알콜공장에서 밭 다쳤지. 조천리 비행장에서는 한 20일 있다가 그리 갔어. 집에 왔다가 2월 아니면 3월에 제주시 부둣가에 있는 알콜 공장에 갔을 거야. 그땐 그 공장을 알콜 공장이라고만 했지. ... 알콜공장이지, 그때가 44년도 한 2, 3월 될 거예요. 미군 공습 받아서 알콜 공장이 부서져서 복구했지. 공습한 거는 직접 못 보고 여러 개가 파진 것만 봤지.(김응길, 1929년생, 남원을 위미리, 2006년 4월 24일 면담, 보고서 153-4쪽).

했는데, 일은 주정공장까지 걸어가서 했다. 그 당시 주정공장은 폭격을 맞아 부서져 버려 수리하는 일에 동원되었다. 15일쯤 일을 하고나서는 한라산 어승생의 군인들이 야전 사령부를 만드는 곳에 땅 고르는 작업을 하다가, 다시 제주시내로 내려와서 물 나르는 일을 하다가 8월 15일 해방이 되면서 도망쳐 집에 왔다.⁵⁰⁾

위에서 요약 정리한 것은 면담 내용 중에 주정공장에 동원되었다고 증언한 4사람의 동원 내용이다. 동원 시기를 보면, 문○송이 1941년부터 동원되었고, 강○길은 1942년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동원되었다고 하였다. 김○길과 고○규는 1945년 폭격 이후 수습 및 복구과정에서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문○송이 동원되었던 1941년은 아직 공장 터를 닦던, 정지(整地)작업을 하던 시기였다. 공장 터 정지하고 건물을 짓는 작업은 1941년에 완성할 계획이었지만, 1943년 9월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주정공장 건설 현장은 크게 제주항 부두 축조사업과 주정공장 터 정지작업으로 나뉜다. 공사는 두 작업 모두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아니라 조선총독부가 맡고 있었고, 실제로는 각기 공사를 수주 받은 회사에게 맡겨졌을 것이다. 문○송이 도로꼬 일을 했다고 한 것은 부지 정지작업을 하던 장소에 레일을 깔아 놓았고, 멀리서 도로꼬에 흙이나 돌을 싣고 짐을 지을 장소까지 밀고 왔다가 다시 가는 일을 반복한 것을 말한다. 강○길은 공장부지 위쪽 창고에 고구마 푸대를 운반하는 일에 동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는 창고 건물이 다 지어지고 원료인 고구마를 받아들여 쌓아 놓던 단계의 작업이다. 이것은 1943년 또는 1944년일 것이다.

공사에 투입되는 노동자는 회사에서 모집하여 일을 시키고 일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노무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각 마을에 지시해서 동원한 주민들은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10일 또는 15일씩 작업을 했다. 그들은 이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다른 현장에 전환 배치되었다고 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당시 주정공장 지을 터의

50) 나는 모슬포는 안 가고, 제주시 정뜨르, 동척회사. 우린 가니까 소대별로 분산해서 일 시키대... 동척회사, 술 공장인데, 그 때 당시에 폭격 맞아서 부서져 버리니까. 거기 가서 수리하다가, 또 다 매꾸기 전에 어승생악에 갔었지. (동척회사는) 부돗가에 있어. 비행장에 가서 일하면서 여기도 가서 부서진데 가서 수리도 하고 그랬어... 6월 한 14일 경에 가가지고, 8월 해방됐단니까 우린 도망 왔지.(고만규, 1930년생, 남원을 위미리, 2005년 10월 13일, 보고서 125쪽).

징용당한 거는 3월 달에 국민학교 졸업하자마자. 6월 15일경인가 미군 폭격기에 맞은 때라. 그때. 가 가지고 일하다가 현 15일쯤 하나까 어승생이 군 주둔해가지고 천막 칠 때 정리했어. 땅 골랐जू게... 첫 번은 우리가 제주시에 가가지고 저 정뜨르에 주둔했어. 동척회사까지 걸어가지고 일 나갔단 말이야. 동척회사는 부돗가 아니라게. 부돗가에 우리가 걸어가지고 일하려 한 15일쯤 하다가 어승생이로 또 이동해가지고 ... 동척회사 미군이 공습한 거지. 그디 가서 파괴된 거 다 정리하고 운반들을 했जू게. ... 정뜨르에서 일 안했어. 그디 저 주둔만 한 거지. 천막 쳐가지고 정뜨르에서 일하지는 않고. 일은 강 동척회사에서 하고.(고만규, 1930년생, 남원을 위미리, 2006년 1월 22일 지영임 면담).

정지작업을 진행하던 하청회사와 도청의 담당 공무원이 손을 잡고 근로보국대의 무상노동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물론 당시 동원된 주민들은 주정공장이 어떤 성격의 공장이고, 왜 자신들이 이곳에 동원되었는지를 따져 묻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관에서 지시한 대로 노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한편 강○재는 1944년 7월~8월에 정뜨르 비행장에서 일했고, 동척회사 건물 보수작업도 했다고 했는데, 건물 보수 작업은 1944년 2월 건물을 다 지어놓고 공장이 정상 가동을 시작한 이후 1944년 2월부터 폭격이 있었던 1945년 6월 사이에 있었던 일로 생각된다. 그리고 김○길과 고○규는 1945년 6월 폭격 이후 현장을 정리하는 작업에 동원되었는데, 김○병도 1944년10월~11월과 1945년 6월~8월 두 차례 동원되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동양척식회사 직영 제주 주정공장 측에서는 주민들을 행정공무원들로부터 인계받아 작업에 동원하고, 돌려보내기만 했을 뿐, 숙소와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급료를 지급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주정공장이 공사에 필요한 내용을 통보하면, 공무원들이 전도적으로 진행되는 근로보국대 동원 과정의 일부로서 노동력을 동원해주었다. 그리고 동원 과정에 필요한 사무와 비용 처리는 관에서 맡아 처리해주는 편리한 구조가 보인다.

이러한 근로보국대로서의 동원은 1945년 6월 미군이 폭격으로 제주항만 시설과 주정공장이 크게 파괴된 이후에 더욱 많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 폭격은 가장 큰 규모의 피해였으므로, 하루 빨리 피해를 복구하는 일이 과제였을 것이고, 당시 제주도의 사정으로 볼 때 이 보다 더 시급한 일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길과 김○규의 사례는 그 중의 일부분일이라고 생각된다.

IV 맺는말

이 연구는 일제 말기 아시아·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 일제의 조선인 강제동원의 실상을 밝히는 작업의 일환으로 제주도에 설립된 동양척식주식회사 주정공장의 설립 과정과 조직 운영의 내용을 검토한 다음, 회사의 건설 과정은 물론 미군기의 폭격에 따른 파괴 시설 복구 과정에 공공 인력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는 특히 일제 말기 지방 행정 기구의 공공 인력 강제 동원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토목 건설을 담당한 하청회사 및 동양척식 회사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공공 인력을 어떻게 빼돌렸는지를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영 제주주정공장은 일본정부가 석유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대체 물로 선택한 산업용 알코올을 생산하는 공장이었다. 특히 동양척식회사야말로 일제의 해외 식민지 건설 및 운영의 첨병으로 활약하는 존재였을뿐만 아니라, 육군이 항공연료로 필요로 했던 부탄올을 생산하는 군수산업시설이었기 때문에 특별관리대상이었다. 이 공장은 제주도에 있어서 가장 규모가 큰 공장이었고, 직원과 공원을 합쳐 거의 300명이 고용되어 있었다. 일제 말기 제주도에서 이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가진 회사는 없었다. 주정공장은 1939년에 제주항 바로 앞의 예정 부지에서 착공식을 가졌다. 부지정리 작업과 공장시설을 완공하기로 한 때가 1941년 3월이었다. 그러나 전쟁 상황이 겹치면서 자재는 물론 각종 설비를 반입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 결국 1944년 2월에야 정상 가동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1945년 6월에 미군 폭격기의 공습을 받아 공장의 절반 이상이 파괴되고 불에 탔다. 그래서 제주 주정공장은 폭격 직후부터 8월 15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피해복구를 위한 작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제주도 주민의 해외로의 동원은 물론 도내 동원 역시 본격적인 조사 연구 작업이 2005년에 시작되었다. 당시 「일제 강점 하 강제동원 진상규명 위원회」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일본군 전적지 조사팀이 각각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상당 부분 그 실태가 밝혀졌다. 특히 제주도는 일제 말기 군사시설 구축을 위한 주민동원에 전국에서도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당시 조사 과정에서도, 조사 결과를 정리 분석하면서도 제주 주정공장은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던 동원장소였다. 일제말기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던

동원 장소는 대정읍 모슬포의 알뜨르 비행장과 송악산 일대와 제주시 서부지역의 정뜨르 육군 동비행장, 그리고 제주시 동부지역의 진뜨르 육군 비행장이었다. 모두가 군사시설이요 비행장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의 주민동원은 징병에 의한 군사동원과 관 알선에 의한 일본이나 동남아, 남양군도 지역으로의 노무동원을 제외한다면, 거의 대부분 군사시설 구축을 위한 근로보국대로서의 동원이었다.

제주주정공장으로 동원된 주민들은 공장부지 정지작업 단계에 동원되어 돌과 흙을 도로꼬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거나 목수로서 작업에 투입되었다. 그리고 공장이 가동 중일 때 원료가 반입되는 창고 정리 작업에도 동원되었고, 1945년 6월 폭격을 맞아 공장이 크게 파괴되고 불탄 상황에 처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복구공사에 투입되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제주주정공장의 터를 정지하는 작업은 조선총독부가 전라남도에 지시해서 진행했는데, 실제로는 하청회사가 맡았을 것이다. 그리고 공장 가동 중에 창고에 반입되는 고구마를 정리하는 작업과 폭격을 맞은 공장을 복구하는 작업에도 비행장 공사나 도로 건설 공사에 근로보국대로 동원된 주민들을 데려다가 10일 또는 보름씩 일을 시킨 다음, 다른 작업장으로 전환 배치한 것이다.

물론 당시 동원된 주민들은 서귀포시 남원 주민들이었는데, 그들은 주정공장이 어떤 성격의 공장이고, 왜 자신들이 이곳에 동원되었는지를 따져 묻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관에서 지시한 대로 노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숙식은 회사가 아니라 비행장 건설 현장의 숙소에서 해결했다. 결국 주민들은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군사시설 구축이 아닌 회사 작업 현장에 투입 되었는데, 이것은 하청회사, 그리고 주정공장 노무담당자가 도청의 담당 공무원이 손을 잡고 근로보국대의 무상노동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태경, 1995, 『(東洋拓殖會社의) 조선경제 수탈사』, 계명대학교출판부.
- 고광명, 2015, 「재일(在日)제주인의 산업경제에 대한 공헌」, 『일본 근대학 연구』 제50집, 한국일본근대학회.
- 고성만, 이규배, 고병수, 박찬식, 고광명, 심재욱, 2020, 『일제 강점기 제주인 강제 동원 실태조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고영철, 2020, 「동척회사..건입동 주정공장(무수주정제주공장)&육군 제5훈련소 터」, 『제주 환경일보』 2020년 3월 28일.
- 權寧旭, 1968, 「東洋拓殖株式會社と宮三面事件」, 『朝鮮研究』 8, 朝鮮學會.
- 국사편찬위원회 편, 2015, 『수집사료 해제집 9 : 東洋拓殖株式會社 職員 名簿, 新韓公社 내부자료』, 국사편찬위원회.
- 김대래, 2004, 「東拓移民의 전개와 한국인의 대응」, 『경제경영연구』 5집, 신라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 김석준, 1986,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사업전개 과정」,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제2집』, 문학과지성사.
- 박찬식, 고광명, 고병수, 2017, 『일제 강제연행 재일제주인 이주경로 추적』, 제주학 연구센터.
- 박찬식, 고광명, 고병수, 심재욱, 2019, 『일제강점기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현황 및 실태조사 (큐슈, 오키나와 편)』, 제주학연구센터.
- 배석만, 2014, 「전시체제기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자금동원 구조와 투자동향 분석」, 『지역과 역사』 34집, 부경역사연구소
- 손경희, 2002, 「1920년대 경북지역 동양척식주식회사 및 일본인 농장경영」, 『계명사학』 13집, 계명사학회.
- 안병태, 1982, 「조선인 지주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경영방식의 차이」, 『한국 근대경제와 일본 제국주의』, 백산서당.
- 李圭洙, 2000, 「전남 나주군 '궁삼면'의 토지소유관계의 변동과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집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1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 이규수, 2021,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수탈과 궁삼면 토지 탈환운동』, 동북아역사재단.

- 이병래, 2007, 「일제말기 노동력동원의 일상화와 민중의 대응방식」, 『역사연구』 제17호, 역사학연구소.
-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2007, 『제주도 군사시설 구축을 위한 노무-병력동원 진상조사』, 동위원회.
-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2008, 『굴 파러 군대 갔어!』, 동위원회.
-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2008, 『일하지 않는 자는 황국신민(皇國臣民)이 아니다-제주도 군사시설 구축에 동원된 민중의 기억』, 동위원회.
- 정혜경, 2018, 「일제말기 제주도 군사시설공사에 전환 배치된 조선인 광부의 경험 세계 - 한반도 내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인식과 배경을 중심으로 -」, 『한일민족문제연구』 35집, 한일민족문제학회.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한라일보사, 2008, 『일제하 제주도 주둔 일본군 군사유적지 현장조사 보고서 I』, 보고서.
- 조기준, 1977, 「日人 農業移民과 東洋拓殖株式會社」, 윤병석 외 편, 『한국근대사론 I』, 지식산업사.
- 조명근, 2020, 「戰時期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자금 조달과 운용 실태」, 『亞細亞研究』 63권 1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조성윤, 2006, 「일제하 제주도 일본군 전쟁유적지 조사 연구의 방향과 과제」, 국제학술대회 「일제말기 제주도와 일본군 전쟁유적지」 발표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한라일보사, 2006년 2월 28일.
- 조성윤, 2007, 「일제 말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과 전적지」, 『軍史』 제62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조성윤 역음, 2008, 『일제 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조성윤, 2012, 「알프르 비행장 : 일본 해군의 제주도 항공기지 건설 과정」, 『탐라문화』 4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조성윤, 2017, 「제주도 강제 동원의 특징과 의의」, 제주지역 일제 강제 징용 노동자상 건립기념 학술 세미나, 제주지역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 2017. 11.15. 45-58쪽
- 조성윤, 2022, 「동양척식회사 직영 제주도 주정공장의 설립과 운영」, 제주학 연구 센터.
- 조성윤, 2023, 「일제의 전시 에너지 정책과 조선총독부의 제주도개발계획과의 만남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영 제주도 주정공장의 설립과정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7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조성윤·지영임·허호준, 2007, 『빼앗긴 시대 빼앗긴 시절: 제주도 민중들의 이야기』, 선인.
- 조정우, 2018, 「지역조사와 식민지의 경계지대 — 1919년 전후 동척과 조선은행의 간도조사—」, 『만주연구』 26호, 만주학회.
- 지영임, 2008, 「구술을 통해 본 일제하 제주도 내 강제동원의 실태와 특징」, 조성윤 엮음, 『일제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진관훈, 2004, 「일제하 제주도 개발」, 『근대 제주의 경제 변동』, 도서출판 각
- 최원규, 2000, 「東洋拓殖株式會社の 이민사업과 동척이민 반대운동」, 『韓國民族文化』 제16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츠카사키 마사유키, 2004, 「제주도에서의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 『4.3과 역사』 제4호, 제주4·3연구소.
- 허수열, 1985, 「조선인 노동력의 강제동원의 실태—朝鮮內에서의 강제동원정책의 전개를 중심으로」, 차기벽 엮음, 『일제의 한국 식민통치』, 정음사. 289-349쪽.
- 허수열, 2008, 「제주도에 있어서 조선인 강제동원」, 조성윤 엮음, 『일제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현미애, 2020, 「일제강점기 제주 산지향 축항 연구」, 제주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高江洲昌哉, 2015, 「日本「内地」における島庁の設置と植民地における島庁の設置」, 『アーカイブズ学研究』 No.22, 日本アーカイブズ学会.
- 大河内一雄, 1981, 『遙かなり大陸 : わが東拓物語』, 續文堂出版.
- 大河内一雄, 1982, 『幻の国策会社 : 東洋拓殖』, 日本經濟新聞社.
- 大河内一雄, 1991, 『国策会社 : 東洋拓殖の終焉』, 續文堂出版. 1991.
- 石井正紀, 2008, 『石油技術者たちの太平洋戦争』, 光人社NF文庫.
- 岩間敏, 2015, 「開戦決定と人造石油—何故、日本に人造石油工業は成立しなかったのか—」, 一橋大學大学院 博士學位論文.
- 塚崎昌之, 2003, 「濟州島における日本軍の「本土決戦」準備-濟州島と巨大軍事地下施設」, 青丘學術論叢』 第22輯, 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 河合和男 外, 2000, 『國策會社・東拓の研究』, 東京, 不二出版.
- 黒瀬郁二, 2003, 『東洋拓殖會社-日本帝國主義とアジア太平洋-』, 日本經濟評論社.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영 제주도 주정공장에서의 제주도민 강제동원

〈연구참여자〉

책임연구원 조성운(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인 심규선

발행기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편집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603호

전화 02-721-1800

팩스 02-721-1882

홈페이지 <https://fomo.or.kr/kor>

인쇄 제일기획